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3 Vol · 219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시립합창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상처입은 영혼

이화(梨花)

오페라 음악극

너무 아파 잊지 못할 역사...
위로 받아야만 하는 영혼들...
그리고, 그 아픔에 드려지는 위로의 노래...

대본/작곡 이용주
연　　출 오정국
지　　휘 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 지휘자)

2010. 3. 17(수)~18(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10,000원, S석-7,000원, A석-5,000원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시립합창단　　후 원 양산병원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합창단 607-3142~4 www.bschorus.or.kr

예 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www.ticketlink.co.kr/부산은행전지점

Sun&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이원국 발레단 사랑의 세레나데 *Love Serenade*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보급 발레리노 **이원국**

한국 남성발레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그는, 국내 남성발레가 이원국 이전과 이원국 이후로 나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발레계에 이정표를 세운 인물이다. 20년동안 '유니버설 발레단'과 '국립발레단'에서 수석무용수로 활약

PROGRAM

- 로미오와 줄리엣
- 백조의 호수
- 차이코프스키 파드되
- 이고르 대공
- 돈키호테
- 잠자는 숲 속의 미녀
- 탱 고

2010. 4.17 (토) 오후 5시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 문화예술기획(주)하늘극단 제작 | 이원국 발레단 티켓 |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예매 | 티켓링크, 팝부산, 해운대문화회관 http://hcc.haeundae.go.kr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 누림회원 • 초 • 중 • 고/ 단체 20명 이상/ 누림회원(20%), 장애인(50%)



바리톤 김동규

Sun&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김동규와 함께하는 어버이날 기념음악회**

I LOVE PARENTS !!

"부모님 사랑합니다!"



지휘 김봉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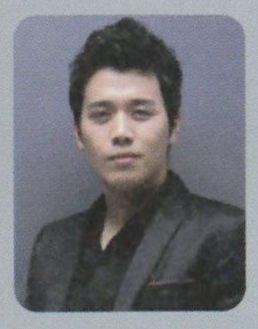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홍지형



크로스오버가수 JUN-O

연주 : YACA NEO 오케스트라

2010. 5.7 (금) 오후 7시30분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 (주)P&P Classic 티켓 | VIP 45,000원 / R석(1층) 35,000원 / A석(2층) 25,000원
예매 | 인터파크, 옥션, 티켓링크, 팝부산, 해운대문화회관 http://hcc.haeundae.go.kr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 누림회원 • 초 • 중 • 고/ 단체 20명 이상/ 누림회원(20%), 장애인(50%)

Busan Symphony Orchestra SINCE1993

25th

Busan Symphony Orchestra



지휘_ **오충근**

제25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IBELIUS Scenes Historiques, Suite No.1, Op.25 I. All'Overtura
(시벨리우스 역사적 장면 모음곡 제1번 작품 25 중 서곡)

RACHMANINOV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 18)

SIBELIUS Symphony No.2 in D Major, Op.43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2번 라장조 작품 43)



협연_ **김진호**



2010. 3. 16(화)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_ Busan Symphony Orchestra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_ BSCF 부산문화재단 특별후원_ Oh Choong Keun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예매_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전석 학생50%할인) 문의_ 010-8508-8310 www.bso21.com

*본 공연은 2010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부산야마하
피아노/악기
전문 판매점









피아노 10~30% 할인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본점	051-863-0900
현대백화점 8층	051-667-0747
신세계백화점 7층	051-743-7784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후문입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3층 피아노사(동백섬앞)	051-743-7785
장림 홈플러스 5층	051-266-4747
광복롯데백화점 9층	051-246-0660

www.**busanyamaha**.com **부산야마하 피아노사** 부산진구 양정 1동 353-2번지 T.051-868-5551 **인터넷 사업부** 051-529-003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 I

11시에 만나요

Dance in Classic

바로크 댄스

영혼의 춤, 인생의 변주



해설 및 진행 **김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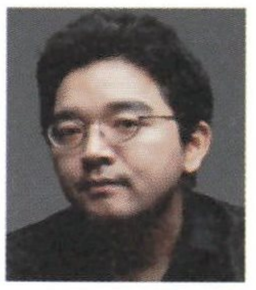
지휘 **이동신**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플루트 **정은지**



바이올린 **김동욱**

댄스



김정은



신선경



김태윤



안무 **김희쟁**

- 장-바티스트 륄리 **터키 의식 행진곡**
- 요한 세바스찬 바흐 **관현악 모음곡**
- 헨리 퍼셀 **디도와 아에네아스**
-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리날도**
-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 **샤콘느**
- 장-필립 라모 **우아한 인도의 나라**
- 모리스 라벨 **쿠프랭의 무덤**

2010. 3. 24 수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입 장 권 **균일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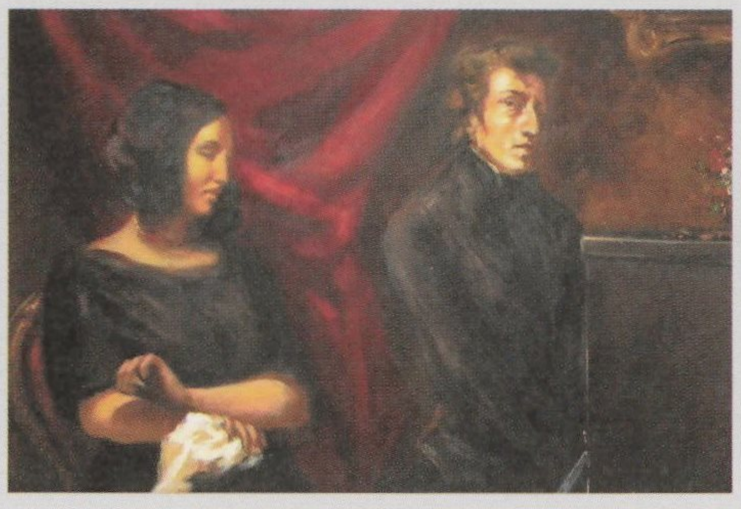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20% 할인 (단, 매수 제한이 있음)

문의 607-3111~3(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0(홍보마케팅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Contents


10 **커버스토리**

리처드 용재 오닐 2010 리사이틀 '노래'

12 **프리뷰**

20 **반갑습니다**

부산박물관 양맹준 관장

22 **은현리 풍경 속에서 시를 읽다 ③**

홍매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 정일근

2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히틀러와 나치 시대의 미술 | 김지혜

28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영화 '파리넬리' | 이동신

30 **불멸의 거장, 쇼팽1**

쇼팽의 로맨티시즘 | 노경원

31 **월드뮤직**

쿠바음악의 진정한 매력, 쏜(Son) | 황윤기

32 **리뷰**

이무지치 신년음악회 '같지만 다르게' | 신설령

위대한 침묵 Into Great Silence과의 만남 | 김희진

34 **그곳에 가면**

문화매개공간 '쌈'

36 **우리는 문화가족**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

37 **나의 애청음반**

국립국악원 기획음반-영산회상, 별곡, 수제천 | 이정필

38 **프로그램 가이드**

53 **100자 토크**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56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58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60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예술에의 초대 2010 + 03 Vol·219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0년 2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03 March 2010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	MON	TUE
	1	2
	중 | 부일신춘음악회 '살매 김태홍 선생의 시에 의한 가곡의 밤' 19:0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부산일보 문화사업부(461-4433) 소 | 정연희 피아노 클래스 제 4회 은혜 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7:00 정연희(010-9587-8737)	
7	8	9
	대 | UKO 제 17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정희자(011-589-3111)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리처드 용재 오닐 2010 리사이틀 '노래'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14	15	16
중 | 부산원음합창단 제 15회 정기연주회 14:30 균일 1만원/부산원음합창단(245-0717, 011-9324-8149)	중 | 토브여성합창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이일경(010-4880-4918)	대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5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010-8508-8310) 중 | 부산음악협회 제 10회 신춘음악회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
21	22	23
소 | 부산통기타리스트 제 17회 정기연주회 16:00 남상석(019-402-5880)		중 | 독우회 제 40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8	29	30
대 | 뮤지컬 모차르트!(Das Musical Mozart!) 15:00, 19:00 13만원 · 11만원 · 9만원 · 5만원 프라미스컴퍼니(1599-6171) 중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개막축하공연 극단 나비소풍 '레인보우 코리아' 15:00, 18:00 4만원 · 3만원/공간소극장(611-8518) 소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치지 않고서야' 18:00 균일 2만원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626-3703)	대 | 사단법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7회 정기연주회 20:00 1만원 · 5천원/장은정(017-842-6688) 소 |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치지 않고서야' 19:30 균일 2만원/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626-3703)	대 | YMCA NEO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9:30 5만원/YMCA필하모닉 오케스트라(440-3372, 070-8613-7308) 중 |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 19:30 균일 1만원/극단 누리에(621-3573) 소 |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치지 않고서야' 19:30 균일 2만원/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626-3703)

전시실

▶ (사)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 제 6회 정기전 '해양과 환경, 그리고 부산' -대전시실

3월 8일(월)~3월 13일(토)
※ 오픈식 3월 18일 18:00
문의 : (사)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262-6562, 017-842-6422)

▶ 제 28회 대한민국 서화대전 및 미술대상전 -대, 중전시실

3월 21일(일)~3월 23일(화)
※ 시상식 3월 21일 11:00 국제회의장
문의 : 박효덕(701-5950, 010-5701-6603)

▶ 제 16회 대한민국 서예대전-대, 중전시실

3월 24일(수)~3월 27일(토)
※ 시상식 3월 27일 13:00 국제회의장
문의 : 최연성(868-5236, 011-864-3698)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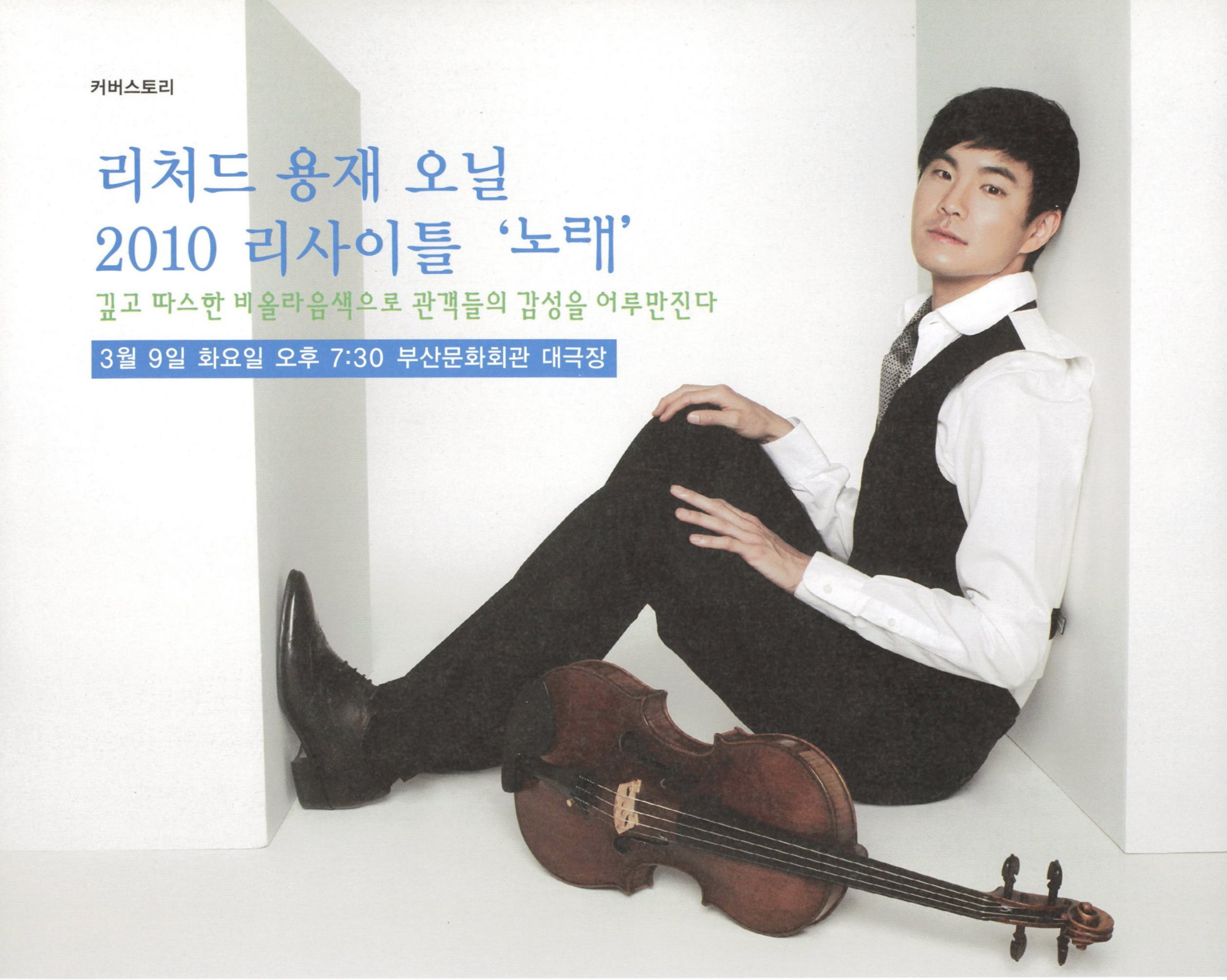
WED	THU	FRI	SAT
3	**4** 중 | 2010 안주경의 춤 Romio & Juliet zwei 'Versus' 19:30 3만원 · 2만원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055-751-6201)	**5**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0 신춘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 전경화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전경화(010-4471-1128)	**6**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가야금연주단 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10	**11** 중 | 부산시립극단 제 37회 정기공연 '헨리 4세-왕자와 폴스타프' 19:30 균일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소 | 조이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이진화(010-4728-4198)	**12** 중 | 부산시립극단 제 37회 정기공연 '헨리 4세-왕자와 폴스타프' 19:30 균일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13** 중 | 부산시립극단 제 37회 정기공연 '헨리 4세-왕자와 폴스타프' 16:00 균일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17 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1회 정기연주회 제 7대 수석지휘자 취임연주회 및 신춘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중 | 부산시립합창단 제 132회 정기연주회 오페라음악극 '상처 입은 영혼 -梨花이야기'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 소 | 전혜주, 전승아 바이올린, 비올라 듀오 연주회 19:30 배건희(010-9017-5949)	**18** 중 | 부산시립합창단 제 132회 정기연주회 오페라음악극 '상처 입은 영혼 -梨花이야기'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	**19**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7회 정기연주회 말러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I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 Vol.7 '소규모 아카시아밴드'-고마워, 내 마음은 너의 숲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20** 대 | 부산대학교 개교 64주년 기념 동문음악회 16:00, 19:30 초대/부산대학교(510-1122) 중 | 페르골레지 탄생 300주년 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제 129회 정기연주회 'Stabat Mater' 17:00 5천원 · 3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소 | 토요상설무대-남산놀이마당 'GOOD! 굿 !! 사물놀이 이야기'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4 중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 콘서트 시리즈 I 'Dance in Classic' -바로크댄스 영혼의 춤, 인생의 변주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문주연 바이올린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문주연(010-7169-0845)	**25**	**26** 중 | 제 28회 부산연극제 개막축하공연 극단 나비소풍 '레인보우 코리아' 19:00 4만원 · 3만원/공간소극장(611-8518)) 소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치지 않고서야' 19:30 균일 2만원/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626-3703)	**27** 대 | 뮤지컬 모차르트!(Das Musical Mozart!) 15:00, 19:00 13만원 · 11만원 · 9만원 · 5만원 프라미스컴퍼니(1599-6171) 중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개막축하공연 극단 나비소풍 '레인보우 코리아' 16:00, 19:30 4만원 · 3만원/공간소극장(611-8518) 소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치지 않고서야' 16:00, 19:30 균일 2만원/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626-3703)
31 중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 19:30 균일 1만원/극단 누리에(621-3573) 소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치지 않고서야' 19:30 균일 2만원/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626-3703)	**4/1** 대 | (사)춤다솜무용단 2010 '비우니 향기롭다' 19:30 5만원 · 2만원 · 1만원 춤다솜무용단(010-3738-2770) 소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치지 않고서야' 19:30 균일 2만원/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626-3703)	**4/2** 중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The Solar System' 19:30 균일 1만원/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242-8198)	**4/3** 대 | Tone in Free Wind Orchestra 제 11회 정기연주회 18:00 1만원 · 5천원/김두천(010-2559-7569) 중 |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The Solar System' 18:00 균일 1만원/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242-8198)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리처드 용재 오닐 2010 리사이틀 '노래'

깊고 따스한 비올라음색으로 관객들의 감성을 어루만진다

3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에요. 서울이나 뉴욕과는 다르게 바다가 근처에 있어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고요. 특히 부산 시민은 다른 도시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연주 투어 일정이 계획되면 오기 전부터 설렙니다. 작년 리사이틀 〈미스테리오소〉에 이어 다시 부산 관객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따스한 비올라 음색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자 '리처드 용재 오닐'이 3월 9일 1년 만에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지난해 부산연주회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비올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리처드 용재 오닐은 한국 클래식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하고 그래미상의 베스트 솔리스트 부분에 노미네이트된 몇 안 되는 비올리스트 중 한 명인 용재 오닐은 줄리어드 대학원에 비올리스트로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입학해 폴 누바우어와 도날드 맥아인스를 사사하였다.

비올리스트 본연의 도전적이고 다양한 레퍼토리들로 꾸며온 용재 오닐의 솔로 커리어는 특별하다. 미국의 카



네기홀, 에이버리 피셔홀, 케네디센터와 런던의 위그모어홀, 파리의 살 코르토, 서울 예술의전당 등에서 솔로 리사이틀 무대를 가진 바 있는 용재 오닐은 언제나 깊고 따스한 그만의 비올라 음색으로 관객들의 감성을 어루만진다. 실내악 활동도 열심인 그는 최근 뉴욕 링컨센터의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정식 단원으로 임명되어, 월터 트램플러와 폴 뉴바우어를 잇는 세 번째 비올리스트가 되었다. 또한 세종솔로이츠 수석 비올리스트로 6년간 활약했으며 현재 카메라타 퍼시피카의 비올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용재 오닐은 2010-2011 시즌에는 바실리 시나이스키의 지휘로 런던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서울 연주 이후 야닉 네제트-세귄의 지휘로 런던과 마드리드 투어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전석 매진된 피아니스트 워렌 존스와의 케네디센터 데뷔 리사이틀, 디토 페스티벌의 음악감독 등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7년간 뉴욕에 거주해온 용재 오닐은 예술에 대한 그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뉴욕시의회의 명예로운 시민상을 수상했다.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도 헌신하는 그는 현재 UCLA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용재 오닐이 사용하는 비올라는 1699년에 이탈리아 볼로냐의 Giovanni Tononi가 제작한 악기이다.

유니버설 클래식 소속인 용재 오닐은 현재까지 4장의 솔로 음반을 발매했으며 총 100,000장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도이치 그라모폰의 〈Winter Journey 겨울 나그네〉와 ARCHIV 레이블로 발매된 〈Mysterioso 미스테리오소〉는 플래티넘 상을 받았다. 2집 음반 〈Lachrymae 눈물〉은 유니버설 코리아의 베스트 셀링 클래식 음반으로 선정되었고 2006년 베스트 인터내셔널 레코딩으로도 선정되었다. 최근 용재 오닐은 히나스테라의 '슬픈 노래', 구아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 브람스 '네 개의 엄숙한 노래' 등을 담은 5집 앨범 〈NORE-Songs without words〉을 발매했다.

이번 부산무대는 5집앨범 수록곡과 평소 용재 오닐이 좋아하는 라흐마니노프 첼로소나타 등을 들려준다. 부산연주회에서는 앨범 작업에 참여한 한국계 독일 피아니스트 크리스토퍼 박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크리스토퍼 박은 나이답지 않은 긴 호흡과 차분하고 침전된 가슴으로 노래하는 피아니스트로 용재 오닐과는 최고의 파트너라 할 수 있다. Jugend Musiziert국제콩쿠르, 뉴욕 국제 마리스마트콩쿠르에서 우승한 크리스토퍼는 독일음악협회, 아르테 무지카, 에후디 메뉴힌의 Live Music Now 등이 수여하는 장학금을 받았다.

PROGRAM 아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아스타비노	장미와 버드나무(아르헨티나 송)
히나스테라	슬픈 노래
빌라-로보스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중 아리아
멘델스존	무언가 D장조 작품 109
브람스	네 개의 엄숙한 노래 작품 121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작품 19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작품 34 제 14번

용재 오닐이 전하는 공연 관람포인트

"이번 공연에서는 5집 앨범 〈NORE〉에 담긴 곡들과 제가 평소 좋아하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음반에 담긴 곡들은 타이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성악을 위해 만들어진 곡을 비올라로 연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원곡과 비교해서 들으신다면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9월 독일에서 이 곡들을 녹음하면서 한 곡 한 곡 아름다운 슬픔이 묻어있는 곡들이어서, 참 행복하게 참여했던 앨범입니다. 여러분들도 공연장에 오셔서 저와 함께 이러한 감정들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4세 -왕자와 폴스타프

3월 11일-13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수석연출가 **김광보**

신임 수석 연출가 김광보와 함께 2010년을 의욕적으로 맞은 부산시립극단이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재미있는 고전 명작무대 '헨리 4세-왕자와 폴스타프' 부산초연무대로 2010년 첫 무대를 연다.

'헨리4세-왕자와 폴스타프'는 셰익스피어의 사극 중 언어의 화려함이 빼어난 수작이다. 완벽한 구조와 인물구성으로 사극의 교과서라고 평가받고 있는 헨리 4세는 셰익스피어의 작가적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방대한 스케일과 무대, 다수의 출연진으로 인해 그동안 무대에 자주 올려지지 않았다.

장미전쟁을 배경으로 왕위를 둘러싼 정쟁을 치열하게 담아낸 이 작품은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배신자가 되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배신자가 되는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과 그 속에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헨리 4세'에서 '헨리 5세'의 등극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배경이나 분위기가 자칫 무거울 수도 있지만 희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왕자의 친구 폴스타프를 통해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표현된다. 희화된 왕자의 친구였던 폴스타프는 햘왕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음모의 수단이었으며 권력 앞에서 부도덕해지는 인간들에 의해 희생양이 되고야 마는 피지배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시극단 단원 이창직(폴스타프), 부산시립극단 단원 박찬영(헨리 4세),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염지선, 유성주, 황창기(헨리 5세), 이혁우 외에도 비상임단원과 객원 배우들이 가세, 26명이 '헨리 4세' 부산초연무대에 오른다.

대학로의 흥행 연출가로 우리 연극계의 주목을 받아온 연출가 김광보는 우리 연극계에서 '서브 텍스트의 귀재'라고 불릴 만큼 작품분석과 인물의 성격 묘사에 능하다. 김광보는 그동안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체육부), 올해의 연극 베스트5 신인연출상(뙤약볕-한국연극협회),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뙤약볕-한국일보사), 올해의 연극 베스트5 작품상(오이디푸스, 그것은 인간-한국연극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작품상(인류최초의 키스-한국연극평론가협회), 포항 바다국제연극제 작품상, 연출상(웃어라 무덤아-포항시), 올해의 예술상 우수작품상(웃어라 무덤아-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연극제 대상, 연출상(발자국안에서-서울연극협회) 등을 수상하는 등 발표 작품마다 화제를 모았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9월 1일 이전 가입한 문화회관 정기회원은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가입한 회원은 20% 할인됩니다. 청소년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3151)

오페라음악극 상처 입은 영혼-梨花이야기

3월 17일-18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난해 연극과 음악을 결합한 오페라 음악극 〈윤동주〉로 합창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부산시립합창단이 3월 17일과 18일 윤동주의 작곡가 이용주와 두 번째 오페라음악극 상처 입은 영혼-〈이화(梨花)이야기〉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오페라음악극 〈이화 이야기〉는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사건을 내용으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 이화(가명)가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는 과정에서부터, 전쟁 후에 겪는 삶의 일대기를 음악으로 그려냈다.

오페라음악극 〈윤동주〉가 한 시인의 삶을 통해서 인류애와 평화의 방법을 찾았던 공연이라면 오페라음악극 〈이화이야기〉는 현 시대에 많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전쟁은 끝이 났지만 우리속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잊혀 지거나 묻어버릴 수 없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과감하게 재조명한다.

극의 대본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오직 진실만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곡자 이용주가 직접 나눔의 집과 일본대사관 수요시위를 참관하고, 관련단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민감한 이화이야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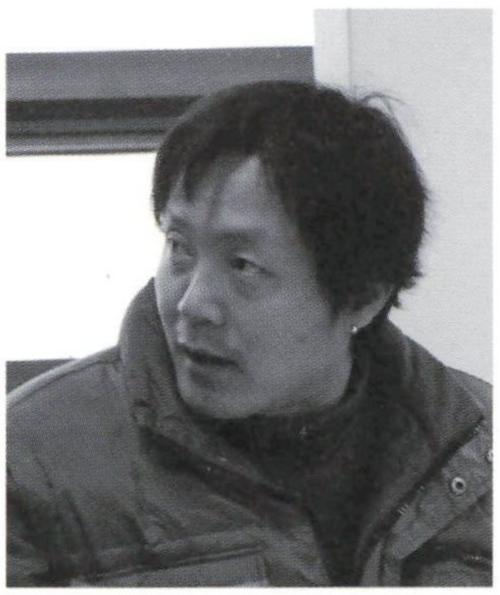
오페라 음악극은 연극을 하며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음악이 있는 드라마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배역들은 연극을 하며 솔로와 중창으로 노래를 하고, 그 뒤에서 40여명의 합창단이 장대하게 배경음악을 만들어내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자들로 변신을 한다. 기존의 오페라나 뮤지컬과 비교해서 극 자체의 이야기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고 합창음악의 비중이 커 작품 전체에 음악적 긴장감이 흐른다. 연극연출가 오정국이 연출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김나영이 강이화, 강종철이 이화 아버지 강문기로, 장은경이 이화 어머니 김순심으로, 이정란, 김윤희, 안소영, 유수정, 김성미가 이화의 친구로, 김진영이 일본순사, 권정은, 김웅태가 일본 군인 1, 2, 김창돈이 위안소 주인 마루야마, 김태우가 이화의 남편 리하이로 '상처 입은 영혼-梨花이야기'의 초연 무대에 선다.

이용주는 이화의 중국인 남편 리하이의 흐느낌에 〈상처입은 영혼-이화이야기〉를 작곡한 그의 바람을 담아내고 있다.

리하이: 알아! 다 이해해…전쟁 통에 그런 상처와 과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무엇보다 이화! 당신 탓이 아니잖아?… 불쌍한 이화, 내가 이제부터 그 상처 다 씻어줄게.


작곡가 **이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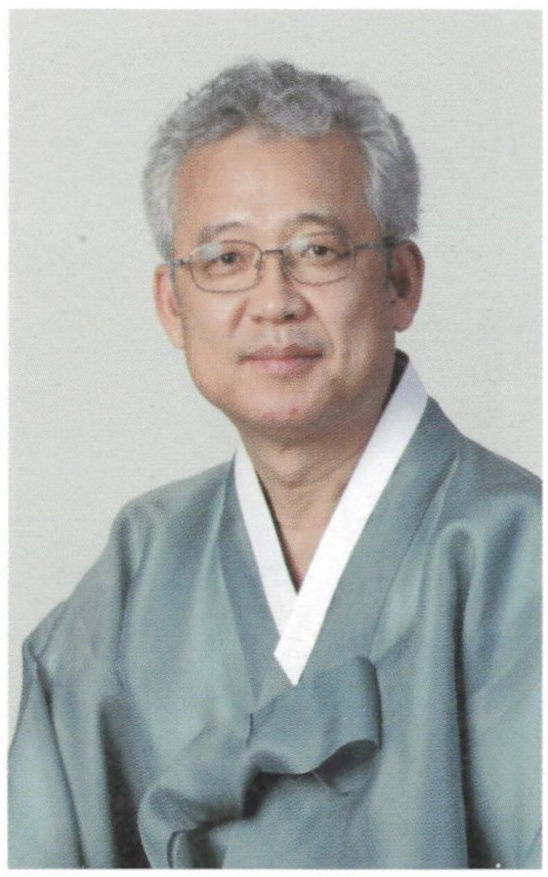

연출가 **오정국**


수석지휘자 **김강규**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9월 1일 이전 가입한 문화회관정기회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가입한 정기회원은 20% 할인됩니다.)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제 7대 수석지휘자 취임연주회 및 신춘음악회

3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지휘자 **김철호**

작곡자, 연주자, 지휘자로 우리 국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김철호 지휘자의 취임연주회가 3월 17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청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상임지휘자,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휘자를 역임한 제 7대 수석지휘자 김철호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감수성과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가진 재능있는 음악인으로 우리 국악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신춘의 활력을 담은 이번 무대는 198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기념 위촉곡으로 초연된 '만선', 2005년 위촉곡 '절영의 전설' 등 그동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 곡들 중에서 우리 국악의 참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명곡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를 펼친다.

첫 무대를 여는 황의종 곡 '만선'은 어부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애환을 그린 곡으로 제 7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명곡이다. 바다에 대한 외경심, 바다가 이들에게 주는 고통과 시련, 어부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만선을 이루는 기쁨을 기원, 출어, 고요한 바다, 파도-폭풍, 죽음, 초혼제, 만선-귀향 등 7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준호 곡 '성주굿을 위한 국악관현악'으로 흥겨운 무대를 마련한다. 성주굿은 여러 지방에서 불리어지고 있지만 이번 무대에서 연주되는 성주굿은 영남지방에서 정월대보름에 불리던 것이다. 노래가사는 집터를 잡아 고르고 난 후 집을



지어 복을 부르고 액을 쫓는다는 내용이다. 작곡가 이준호는 관현악과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비나리와 함께 재구성했다. 2010년 신춘음악회를 맞아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덕담을 우리나라 최고의 예인으로 손꼽히는 조갑용의 구성진 소리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의 신명난 연주로 축원해본다. 국립국악원 사물놀이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경기도립국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갑용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 진주 삼천포농악 전수조교로 해외 80여 개국에서 공연을 펼치며 우리음악의 맥을 이어왔다.


꽹과리 **조갑용**

이어서 연주되는 백대웅곡 '남도아리랑'은 우리나라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인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을 주테마로 하여 작곡된 명곡이다. 진도아리랑의 남도 육자배기선율과 밀양아리랑과 메나리 가락, 그리고 중간의 활기찬 타악 연주가 돋보이며 우리 음악의 멋과 흥에 젖게 한다.

2005년 위촉곡으로 초연된 강봉천 곡 '절영의 전설'은 자기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달리는 빠른 말 '절영'의 힘찬 소리를 25현 가야금으로 표현한 곡이다. 예부터 영도는 절영과 같이 빠른 명마들을 기르던 곳이라는 의미로 절영도로 불리어 왔다. 작곡가 강봉천은 힘찬 절영의 소리를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에 얹어 무겁게 사는 세인의 마을을 달래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악보 출판기념 연주회 전바탕 독주 무대를 가진 바 있는 김남순 교수는 KBS국악대상 현악부문 수상, 제 12회 KNN문화대상 문화예술상 수상, 봉생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가야금 **김남순**

마지막 무대는 이경섭 곡 '바람의 유희'로 장식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몇 차례 연주, 많은 사랑을 받은 '바람의 유희'는 장단과 박자, 재즈는 물론 트로트, 국악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에 우리와 놀 수 있는 소리를 바람의 느낌처럼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춘석이 피리, 태평소를 연주한다.


태평소 **박춘석**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9월 1일 이전 가입한 문화회관 정기회원은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가입한 정기회원은 20% 할인됩니다.)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말러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I

3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해설 김문경

2010년 구스타프 말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말러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첫 번째 무대가 3월 19일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지휘, 국내 최고의 말러 전문가 김문경의 해설로 펼쳐진다.

보헤미아 태생의 오스트리아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는 2010년 말러 탄생 150주년, 2011년 서거 100주년까지 이어져 전 세계적으로 말러를 기리는 열풍이 불고 있다. 말러는 그의 생애 동안에는 위대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한 명으로서 잘 알려졌으나, 사후에 중요한 후기 낭만파 작곡가로 그의 음악을 인정받았다. 20세기 작곡기법에 있어 중요한 선구자로 인식되고 있는 말러는 아르놀트 쇤베르크,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벤자민 브리튼 등과 같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말러의 수많은 곡 중 특히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 그리고 교향곡과 연가곡의 합성인 '대지의 노래'가 유명하다.

기념음악회 첫 번째 무대에서는 작곡자 스스로 '열정, 비극, 엄숙, 거침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이 가득한 음악'이라고 표현한 말러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생전에 말러는 여러 낭만주의적 요소들이 집약된 10곡의 교향곡을 남겼다. 교향곡 5번은 그의 인생의 표적과 같은 곡이다.

이 작품은 말러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1901년, 빈 국립 가극장의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발표되었다. 이 시기 말러는 지휘자로 확고한 명성을 얻었고, '괴짜' '이방인'이라는 편견을 벗고 작곡가로서도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 교향곡 5번에는 웅대한 자연 시(詩)에서 질풍노도의 피날레로 이어지는 1번, 죽음과 부활의 고통스런 변증법인 2번,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 주는 공포에서 시작해 자연과 인간과 절대자의 교감을 발견하는 3번, 어린이가 보는 천국의 행복을 노래한 4번 등 이전에 작곡한 네 곡에서 보여준 방황이 없다.

해설을 맡은 김문경은 말러의 생애와 교향곡 분석을 집대성한 구스타프 말러 3부작을 완간하여 음악애호가와 언론의 찬사를 받은 말러스페셜리스트이다. 지난해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시리즈 '말러와 11시에 만나요!'에서 해설을 맡아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친숙한 김문경은 현재 클래식 음반 전문매장 '풍월당',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9월 1일 이전 가입한 문화회관 정기회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가입한 정기회원은 20% 할인됩니다.)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시리즈 I 'Dance in Classic'

바로크 댄스 – 영혼의 춤, 인생의 변주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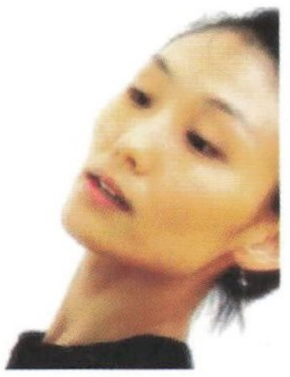

지휘 이동신


해설 김문경


바이올린 김동욱


플루트 정은지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발레리나 김희쟁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 감상과 다채로운 공연의 묘미를 선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시리즈 I 'Dance in Classic'이 2010년에도 화려하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클래식 음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다소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는 클래식 춤곡을 주제로 4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진행되는 2010년 웰빙콘서트는 지난해 웰빙콘서트에서 호흡을 맞춘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이 해설을 맡아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Dance in Classic 첫 무대는 3월 24일 바로크 댄스로 연다. 대체적으로 극음악이 탄생된 1600년부터 바흐가 죽은 1750년경에 유행한 바로크 음악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과 같은 대비적인 효과를 추구하고 심리적인 감동과 극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율을 장식하고 화성에서 으뜸음을 중심으로 힘차고 색채감과 극감을 더해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김동욱, 플루티스트 정은지, 메조소프라노 강희영이 협연자로 함께 흥겨운 바로크 댄스 음악을 들려준다.

플루티스트 정은지는 영국 최고의 플루트 전문 음악사 'All Flutes Plus'가 주관하는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졸업까지 All Flutes Plus의 후원을 받았다. 최근 그리스 메디테라니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정은지는 그리스플루트협회가 주관하는 플루트 컨벤션, 2010 영국플루트협회 주최 맨체스터 플루트 컨벤션에 독주자로 초청받았다. 정은지는 현재 독일 하노버 음대의 안드레아 리버크네히트 클라스에서 솔로-최고연주자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바흐 '관현악 모음곡 제 2번 나단조 작품 1067'을 들려준다.

메조소프라노 강희영은 F. 칠레아 국제콩쿠르 1위에 입상하고 독일 자르브뤼켄 주립극장 오페라 합창단 정단원을 역임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헨리 퍼셀의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 '내가 대지에 묻혔을 때(디도의 탄식)', 헨델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를 들려준다.

LA 챔버 카메라타,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는 김동욱 악장은 비탈리 '샤콘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그 외에도 부산대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와 브이쉬발레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나 김희쟁이 발레리나 김정은, 신선경, 발레리노 김태윤과 함께 장-필립 라모의 '우아한 인도의 나라'와 어우러지는 바로크 댄스 무대를 선보인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10년 제 28회 부산연극제

3월 26일(금)-4월 12일(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소극장 · 야외무대,
시민회관 소극장 · 야외무대

부산연극계 최대의 축제인 부산연극제가 3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부산연극제는 부산지역 7개극단이 경연부문에 참가해 전국연극제 참가 티켓을 놓고 경연을 펼친다.

올해는 지난해 부산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극단 시나위의 창작극 '한(韓恨恨)'을 비롯 극단 에저또 '네메시스',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 극단 부산레퍼토리시스템 '늙은 날의 초상' 등 7편의 창작초연작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부산연극제에서는 경연작 7편 외에도 개막 축하공연 극단 나비소풍의 창작극 '레인보우 코리아'와 6편의 자유참가작을 만날 수 있다. 자유 참가작은 인형극단 까치 '신데렐라 스토리', 극단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의 국악체험놀이극 '호랑이를 만난 놀부', 극단 사계의 '행복을 굽는 헨젤과 그레텔' 등 세편의 아동극과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치지 않고서야', 극단 사계의 로맨틱 뮤지컬 '러브이즈…2', 극단 맥 연희극 '할미전'이 무대에 오른다.

연극제 기간동안에는 제 3회 부산시민연극제(4.2~4.7,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역대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 사진전(3.26~4.10, 시민회관 소극장 로비)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연극제 기간동안 극장 입구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꿈꾸는 놀이터' 건립을 위한 디지털릴레이 모금운동이 펼쳐진다.

●○● 개막축하공연

극단 나비소풍 '레인보우 코리아'
3월 26일-28일 금요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베트남인 친엄마를 찾아 가출한 선우와 아들 선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친엄마 란을 통해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한다.

· 작/마지인 · 연출/김종연

●○● 경연작

극단 에저또 네메시스
3월 29일-30일 월-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사랑은 없다고 믿는 여자와 가난을 저주하며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는 남자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
· 작/김지연 · 연출/최재민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
3월 30일-31일 화-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일제 강점기 치하 서로 다른 선택을 내려야했던 수한과 진한, 기영의 삶을 통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작품.
· 작/고연옥 · 연출/강성우

극단 레퍼토리시스템 '늙은 날의 초상'
4월 1일-2일 목-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한 노인들을 통해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소외를 그린 작품.
· 작/강진순 · 연출/이기원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The Solar System'
4월 2일-3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보이저호에 영감을 얻어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작가가 보이저라는 인물을 창조한 후 그에게 '인생'이라는 그랜드 미션을 부여한다. 시스템이 지배하는 갇힌 세계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는 작품.
· 작, 연출/김지용

극단 도깨비 '1.22'
4월 4일 일요일 오후 6:00, 5일 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그린 작품. 제목인 '1.22'는 세계 두 번째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출산율 수치이다.

· 연출/김익현

하늘 개인날 '방외지사 이옥'

4월 5일-6일 월-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선 후기 정조의 '문체반정'에 맞서 끝까지 자신의 문체를 고집하며 신념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문인 이옥의 파란만장한 삶에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이 결합된 픽션 작품.

· 작/김문홍 · 연출/김태호

극연구집단 시나위 '한(韓恨恨)'

4월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고조선 역사상 가장 융성하고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B.C 180년 조선을 배경으로 쓰여진 픽션 작품.

· 작/강태욱 · 연출/김세진

●○● 자유참가작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치지 않고서야'

3월 26일-4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자녀라는 이름의 당신과 만드는 가장 가깝지만 먼 엄마라는 이름의 이야기를 그려낸 연극 '미치지 않고서야'.

· 작, 연출/김민우

극단 사계 'Love is…2'

3월 26일 금요일 오후 7:00, 27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사랑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두 남녀의 알콩달콩 사랑이야기가 경쾌한 선율 속에 펼쳐지는 로맨틱 뮤지컬.

· 작, 연출/김만중

인형극단 까치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스토리'

4월 7일-8일 수-목요일 오전 10:40, 11:40 시민회관 소극장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신데렐라의 모습에서 세상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전하는 가족뮤지컬.

· 작, 연출/이준하

2009년 부산연극제 대상작 '대숲에는 말이 산다'



극단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 '호랑이를 만난 놀부'

4월 9일 금요일 오전 10:40, 오후 7:30, 10일-1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우리의 전래동화에 판소리와 민요, 탈춤을 가미해 다양한 장르의 국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구성한 국악체험놀이극.

· 작, 연출/이덕인

극단 사계 '행복을 굽는 헨젤과 그레텔'

4월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1:00, 5:00, 12일 월요일 오전 10:4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아빠가 만든 행복의 과자와 가족간의 사랑이 모여서 나쁜 숲속 마녀를 착한 마녀로 동화시킨다는 가족극.

· 작/전상배 · 연출/김만중

극단 맥 '할미전'

4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11일 일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소극장

수영야류의 할미과장을 새롭게 각색해 해학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전통연희극인 마당놀이 형식에 접목시켜 놀이극으로 펼친다.

· 연출/이정남

■ 관람료 균일 10,000원 (개막축하공연 1층 40,000원 · 2층 30,000원, 자유참가작 '미치지 않고서' 균일 20,000원, '호랑이를 만난 놀부' 균일 16,000원, '행복을 굽는 헨젤과 그레텔' 균일 15,000원)

■ 문 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www.bstheater.or.kr)



부산은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다양한 유물을 간직한 역사의 보고

부산박물관 양 맹 준 관장

평생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문화재 사랑을 펼쳐온 전 문화재 감정위원 양맹준 씨. 지난 해 9월부터 부산박물관장의 중책을 맡아 부산시민들과 만나고 있는 그에게 부산박물관은 인생의 궤적이 새겨진 특별한 공간이다.

"전국 공립박물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박물관 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산박물관이 박물관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부산시립박물관 개관당시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한 양맹준 관장은 당시 유물교섭과 전시기획 등의 실무를 맡아 추진한 바 있어 박물관 업무에 누구 보다 밝다. 후

배, 제자 등 박물관 가족들은 30년 만에 친정인 부산박물관으로 돌아온 그를 매우 반긴다.

이번 임용에서 양맹준 관장은 그동안 부산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등을 지낸 경력과 문화재와 사료수집 등 관련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높이 평가 받았다. 그는 고문서, 서지 분야가 전공이지만 도자기와 서화, 불교미술에도 조예가 깊다.

문화재 감정관으로 공항이나 부두에 근무하면서 에피소드가 많다. 고려사 편찬의 중심인물인 이선제公의 생애와 양력을 백상감 분청사기 위에 기록한 '분청사기 상감묘지'를 반출 금지한 것은 유명하다. 안타깝게도 후에 김해공항에서 반출 금지한 이 물건이 후일 다른 공항을 통하여 국외로 반출되어 대검의 수사가 이루어져 전국이 떠들썩했다.

양맹준 관장은 부산박물관 개관 당시 근무했던 만큼 박물관의 기능, 역할에 애착이 많다. 개관 30년을 넘어 새로운 세대를 시작한 부산박물관은 본관인 부산박물관 외에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을 설명하는 동삼동 패총전시관, 삼한 ·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가야문화를 보여주는 고고전문박물관인 복천박물관, 개항이후 일제의 수탈과 부산의 근대화를 살필 수 있는 부산근대역사관, 한국전쟁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의 생생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임시수도기념관 등 특화된 분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정관신도시에 생활유적을 바탕으로 선사, 고대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정관박물관이 세워질 예정이어서 부산박물관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박물관이 전시만 하고 관람객이 와서 보아주기를 바라는 곳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그는 평소 박물관이 유물수집과 보존, 연구, 홍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아울러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쉽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부산박물관은 2010년 기획전시에 어느 해 보다 많은 공을 들였다. 그 첫 전시로 1월 19일 우리민족의 신앙과 설화, 예술, 생활 등 문화 곳곳에 등장한 호랑이를 전시한 '호랑이 띠 전시'를 시작했다. 4월에는 조선인의 생업과 풍속을 담은 사진전, 6월에는 조선시대 찬란한 과학기술을 엿볼 수 있는 '과학의 나라, 조선' 특별전, 9월에는 선사, 고대의 신발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고대인의 신' 등을 열 계획이다. 또, 5월에는 1592년 음력 4월 15일(양력 5월 28일) 동래성이 함락된 5월 28일에 맞추어 부산박물관 앞마당에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이순신' 야외공연을 가진다. 또 임진왜란실을 개방해 임진왜란 중 사용된 갑옷, 화살촉 등 유물을 통해 당시의 역사를 되돌아 볼 계획이다.

부산박물관은 1,000명이 넘는 박물관 매니아들이 있다. 500여명의 회원으로 꾸려진 부산박물관회, 박물관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60여명의 자원봉사자, 박물관이 배출한 문화관광해설사 등 오랜 세월 부산박물관과 함께 해온 가족들이 그들이다. 앞으로도 성인박물관 강좌, 우리가족 박물관 탐방교실, 특별초청강연회 등을 통해 박물관 매니아들과 만날 계획이다.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환경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석기시대, 구석기 시대 유물부터 현대사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분포해 있는 부산은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고집스럽게 우리문화재 사랑을 펼쳐온 양맹준 관장. 그와 함께 하는 2010년 부산박물관 나들이가 기다려진다.(글, 사진/백경옥)

홍매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정일근_ 시인



사진/정일근

은현리에 홍매화가 피었습니다. 홍매화 한 송이를 꺾어와 차 한 잔 우려내며 봄 햇살 속에 혼자 앉았습니다. 꽃에게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봄의 향기를 코로도 맡고 겨우내 텁텁해진 혀끝으로도 맛보고 싶었습니다. 산골에 사는 사람의 주제넘은 이 호사를 당신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진공관 앰프에 불을 밝혀 이탈리아 음악가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듣습니다. 알레그로-라르고-알레그로로 이어지는 3악장은 한 편의 시처럼 즐겁게 펼쳐집니다. 경쾌하고 활기차고, 고요하고 부드럽고, 명랑하고 밝은 봄의 시편이 홍매화의 향기와 어울려 만들어내는 3월입니다.

당신께서는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는지요? 홍매화는 그냥 붉은 매화라고 생각했는데,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꽃 속에는 수십 개의 음표들이 음악에 따라 흔들리며 매화의 붉은 향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꽃이 꽃으로 존재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것들이 꽃의 이름 속에 숨어서 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저 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사랑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심고 그 사랑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눈물이 숨어있다는 것을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 앞만 보는 일이 아니라 뒤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홍매화는 가르쳐줍니다. 앞만 보는 사랑은 욕심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욕심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랑은 무한하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부산 출신의 강태기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사람이 죽는다' 라고요.

홍매화 향기를 깊이, 아주 깊이 들이 마십니다. 심장이 터질 듯 봄의 향기를 마십니다. 저에게 홍매화 한 잔은 우주의 율(律)을 호흡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다 버리고 우주의 질서를 호흡합니다.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아니라 우주의 들숨날숨을 따라 호흡하며 제 생애에 찾아온 또 한 번의 봄을 무릎 꿇고 맞이합니다.

절집에서 추운 겨울동안의 동안거를 마친 운수납자들은 제 길을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봄이 찾아오고 봄바람이 붑니다. 비워진다는 것 또한 사람의 욕심입니다. 홍매화 차 한 잔으로 저는 다만 고요해지고 싶습니다. 고요 속에서 가장 바른 자세로 앉고 싶습니다.

은현리 들판에 쑥들이 게릴라처럼 쑥,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쑥을 캐서 당신을 위해 쑥국을 끓이고 싶습니다. 엄나무, 두릅나무에도 새잎이 돋고 있습니다. 그 잎으로 봄나물도 무쳐보고 싶습니다. 은현리 봄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당신과 함께 배불리 먹고 싶습니다.

차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다시, 봄입니다. 나무는 꽃을 피우지만 삶은 또 한 해를 살아야하는 일이 꽃입니다. 저는 당신의 꽃이고 싶고, 당신은 저의 꽃이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꽃일 때 봄의 시간도, 사람의 시간도 향기로운 것입니다.

당신,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렵니까?



히틀러와 괴링

히틀러와 나치 시대의 미술

김지혜 · 독일 포츠담대학교 박사과정

2차 세계대전 종전 65년이 지났지만 독일 내에서 히틀러에 대한 책과 논문, 연극, 영화, 뮤지컬, 패러디 등은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히틀러는 자신의 어두운 성장 배경 때문에 어린 시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그의 조상이 유대인이라는 설에서부터 과거사에 대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의 베일에 싸여 있는 과거사 중에서도 예술이 그의 인생에 미친 영향은 그의 일그러진 정치 사상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래서 히틀러에 관한 연구 가운데서도 그의 정권욕과 독일의 우월성에 대한 병적인 신념의 근원과 예술과의 관련성을 찾는 주제는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엽서용 그림-수도원

나치 독일 시대의 예술 이데올로기

1930년대에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유럽 예술의 정점에 이르고 있던 근대 독일 예술은 극도의 탄압을 받게 된다. 1933년 나치 제국은 '예술작품이란 단지 특정한 인종에 의해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으면서 독일의 순수 혈통으로 일컬어지는 아리안족 출신의 예술가들의 활동만을 허락했다. 이에 유대인, 공산주의자,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은 더 이상 '독일적'이지 않고 이질적인 쓰레기로 치부되고 만다. 특히 표현주의 예술을 비롯한 추상적인 미술은 당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되는 추세였는데, 나치는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퇴폐적인 미술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작품들을 소각시켜버렸다. 예술 활동은 더 이상 개인의 표현 수단이 아니라 나치 정부의 정당성과 독일 민족의 우수성, 그들의 인종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나치의 탄압을 못이긴 많은 작가들, 특히 유대인 출신의 예술가들은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이것은 미술 분야 뿐 아니라 음악, 문학, 자연과학 등 지식인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의 탄압 덕분에 이루어진 지식인들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새로운 예술과 학문 발전의 터전이 된 것은 물론이고 독일을 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까지 이어졌다.

나치 정부는 풍경화와 정물화, 신화의 영웅들, 인부들과 농부들의 노동 장면들을 주요 모티브로 권장했다. 건강하면서도 순수함과 기품이 넘치는 여신과 같은 여성의 모습과 고대 그리스 영웅들의 균형잡힌 신체와 근육미는 나치의 힘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정치 예술의 미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모유를 먹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순수 아리안 족의 확산을 위한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선호되기도 했다.

1936년 이후 현대 미술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는데 히틀러는 현대 전위미술을 탄핵하기 위한 기념전시회를 개최해서 1937년 뮌헨과 베를린 등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기도 했다. 이 전시회를 위해서 나치 정부는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 작가들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응모된 총 1만 6천 여점 중 600여점이 전시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때 젊고 재능있는 작가들은 공모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당시 젊은 작가들의 간접적인 저항을 엿볼 수 있다.



개(데생)



개(데생)



정부 에바 브라운(데생)

히틀러, 인정 받지 못한 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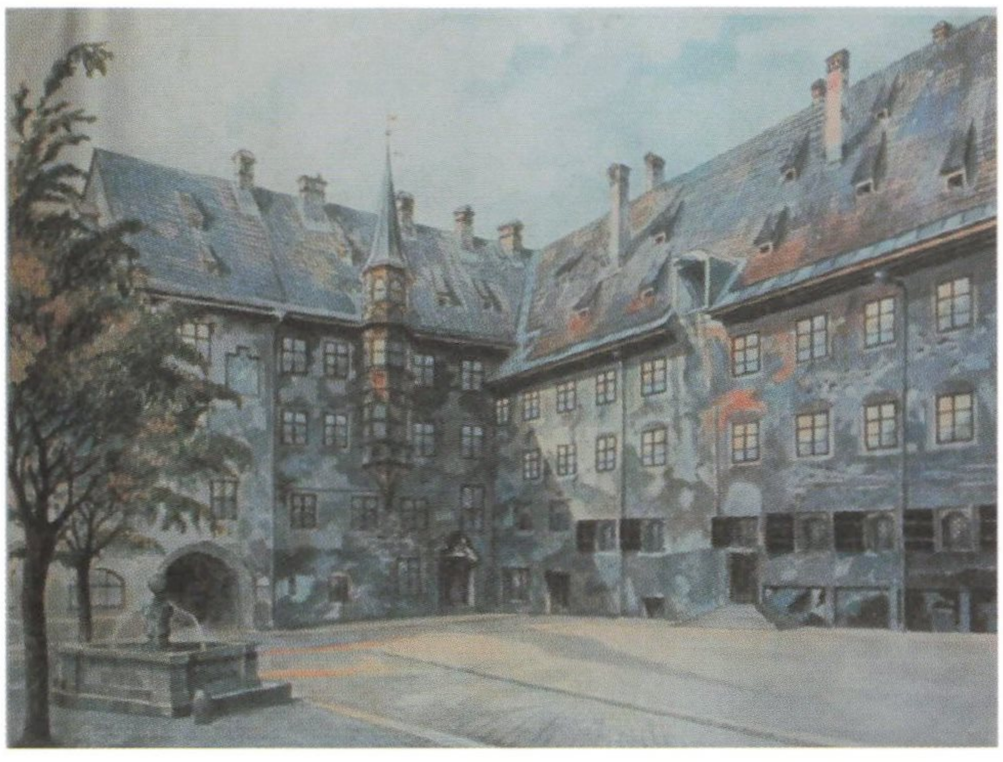
히틀러가 젊은 시절에 화가 지망생이었던 사실은 아주 유명하다. 그는 갓 스무살이 되던 1909년 오스트리아의 빈 예술아카데미에 지원하지만 별 재능이 없다는 아카데미측의 통보를 들으며 낙방하고 만다. 아카데미의 교장은 그와의 개인 면담을 통해 어쩌면 건축과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음번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공부들을 보충할 것을 충고한다. 하지만 히틀러에게 있어서 그 장벽은 너무나 높았고 결국 두 번의 응시는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화가로서의 꿈을 접는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화가가 되기를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곳에는 전혀 응시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뒤에 재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가들은 그가 어린 시절에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폭행과 땅에 떨어진 자존심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 시켜서 더 이상의 시도를 허락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들 말한다. 화가로서의 실패감은 1907년에 발생한 그의 어머니의 자살과 맞물려서 그의 인생관을 바꾸게 만들었다. 그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크게 대성통곡을 했었다고 당시 동네 주치의는 증언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젊은 시절에 그렸던 엉성한 데생과 수채화 작품들은 그저 아마추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매를 통해 고가에 팔리고 있다. 그는 수채화와 엽서용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2006년 벨기에에서 발견된 수채화 작품들은 17만 유러까지 호가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작품성 때문이 아니라 히틀러라는 인물 때문인데, 학살자의 작품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판매상들은 그의 작품들이 정치 입문 이전에 그려진 것이라 폭군 히틀러의 것이 아닌 한 화가의 작품으로서 그 가치를 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그가 1920년대 이후 정치계에 입문하고 이후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후에도 그는 예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권력에 대한 욕망처럼 예술 작품에 대한 탐욕 역시 걷잡을 수 없어져서 온 세계로부터 그림, 가구, 동상들을 닥치지 않고 수집해댔다. 그가 수집상들을 통해 구입하거나 프랑스, 네델란드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압수, 강제로 구입한 수 천점의 작품들은 그의 비밀 벙커와 수상 관저, 지하실 등 곳곳에 넘쳐났다. 그는 오스트리아 린츠에 세계에서 가장 큰 '지도자 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1939년 린츠 박물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의 세계 정복 야망이 이루어졌더라면 1950년 이 박물관은 화려한 개관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가 패전하고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하면서 많은 작품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압수되거나 소유국을 통해서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히틀러의 광기 어린 천재관

많은 역사가들은 히틀러의 화가로서의 좌절감으로부터 형성된 깊은 열등감과 범게르만주의와 유대인 배척 서적을 통해 형성된 복합적인 심리가 강력한 독일 제국



1914년 뮌헨 구 관저(수채화)



건물 풍경(수채화)

을 이루겠다는 야심의 배경이 되었다고들 해석하고 있다. 반면 문화 역사가인 비르깃 슈바르츠는 '천재의 광기 히틀러와 예술'이라는 저서에서 히틀러의 권력욕의 근원을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고 있어서 흥미를 끌고 있다. 그녀는 히틀러가 독재자가 된 것이 그의 광기 어린 천재관에 기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히틀러는 미술대학 응시에서 낙방한 후 자신을 재능 없는 화가라고 인정하는 대신 단지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발굴되지 못한 화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19세기에 유행했던 '천재관'을 내면화했다고 한다.

낭만주의 시대의 천재관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지금의 천재의 개념과는 달리 전인격적인 면에서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천재는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윤리에 어긋나는 악한 일조차도 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받았다고 믿었다. 아무튼 그는 화가로서는 신통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숨어있는 창의적인 천재로 간주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잠재된 천재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는 화가 대신 정치의 길을 통해 그의 '무한한 천재적 재능'을 드러내고자 했고 이것은 세계 정복 야망과 유대인 말살이라는 잔혹한 테러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히틀러는 자신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천재라는 사실을 예술가로서의 자아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권력에 올라선 이후에도 예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광적으로 작품들을 수집해 모았으며 수집된 작품들에게 자신을 투영시킴으로써 예술과의 일치감을 맛보았다. 그리고 예술 작품 수집을 군사적 전술로 이용했던 프로이센 제국의 프리드리히 대왕을 우상시하면서 모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히틀러가 예술 작품들을 수집한 것은 정치적 선전을 위한 도구로서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을 천재이자 예술혼에 사로잡힌 인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예술 작품 수집은 거부할 수 없는 천재의 과제로 합리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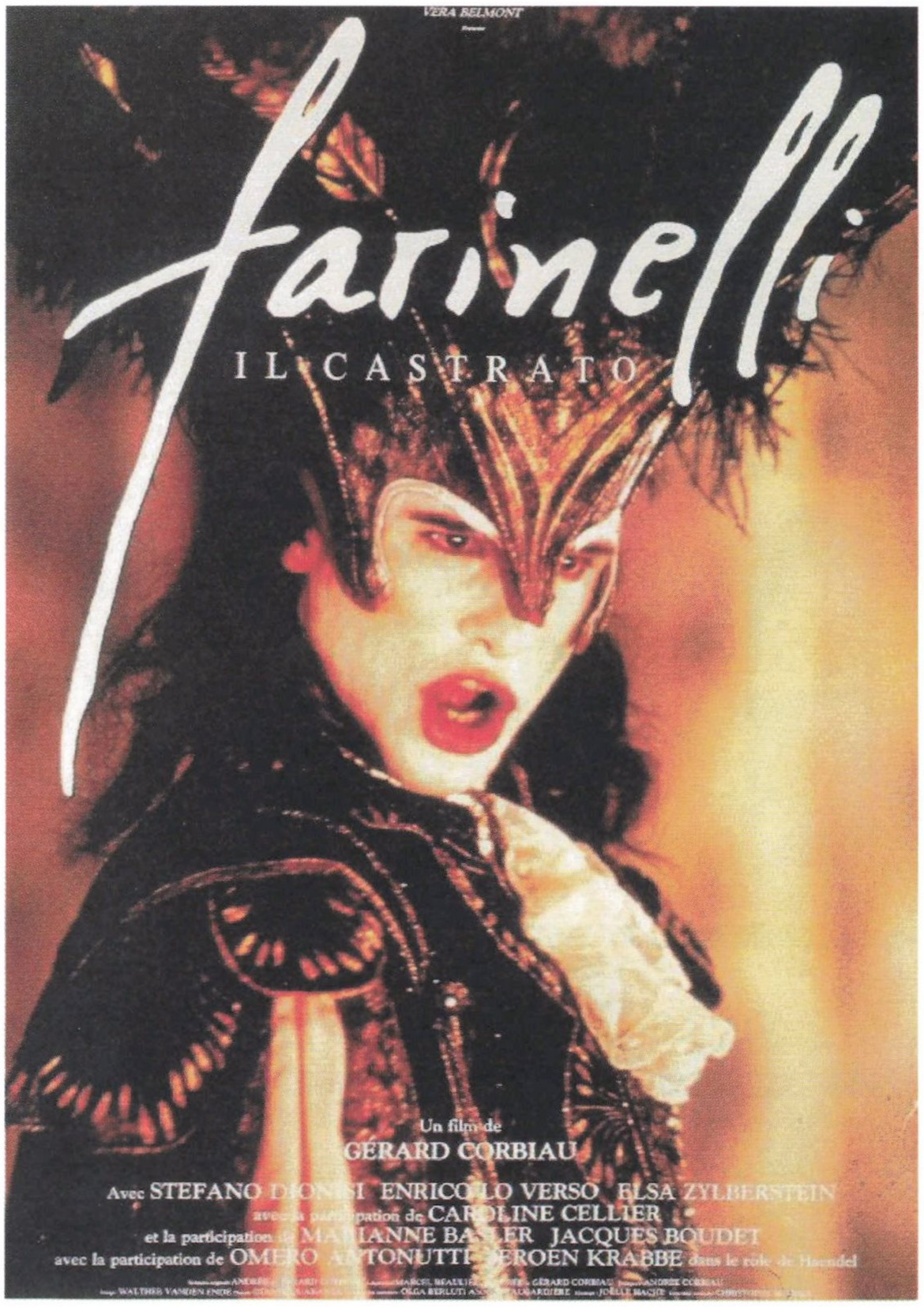


히틀러 자화상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가 화가가 되었었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말한다. 전쟁은 과연 발생하지 않았을까? 600만 유대인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히틀러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눈을 여는 데는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자신이 보고자 했던 것만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그가 의도했던 일이기도 했고 이것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았다.

영화 '파리넬리'

이동신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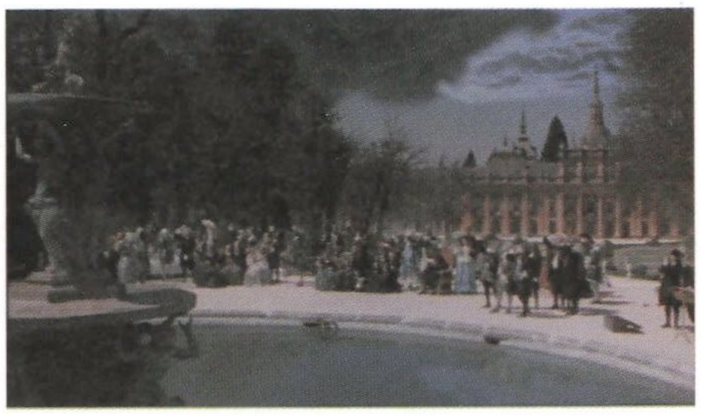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카스트라토 가운데 한 사람인 '파리넬리'의 생애를 바탕으로 탄생된 영화 '파리넬리'.

서양음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11세기에 음악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의 한 가지가 다성음악의 출현이다. 하나의 성부이던 음악이 여러 성부로 발전되면서 높은 음역인 소프라노는 변성기 전의 소년들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악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변성기 이전의 소년들은 높은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힘이 부족한데다 기껏 훈련을 시켜 놓으면 몇 년 후에 변성기를 맞는 바람에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일쑤였다. 교회음악이 융성했던 이 시기에 성가대는 남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17세기경 이탈리아에서는 소년이 변성되기 전에 거세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높은 음역을 노래하는 '카스트라토'를 만들게 된다. 카스트라토는 변성기 이전의 소년과 같이 높은 음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 소프라노보다 훨씬 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제라르 코르비오 감독의 영화 〈파리넬리〉는 실존인물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카스트라토 가운데 한 사람인 '파리넬리'의 생애를 바탕으로 평생 잃어버린 한 남자의 비극적 운명을 조명한다.

한 카스트라토의 자살로 영화는 시작한다. '살고 싶으면 노래를 하지 말라' 던 그 외침에 파리넬리는 노래를 부르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파리넬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아꼈던 작곡가이자 형 리카


르도는 파리넬리가 심한 병으로 목소리가 상할 위기에 처하자 정신을 잃고 앓고 있던 파리넬리를 거세해버린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카스트라토가 된 파리넬리는 그때부터 형과 같이 다니며 형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동시대 가장 위대한 음악가였던 헨델은 파리넬리에게 영국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지만 리카르도는 파리넬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이를 좌절시킨다.

유럽 순회공연에서 여러 해 동안 형제는 유럽의 각 나라를 돌며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형 리카르도는 자신의 음악만을 연주할 악기로서 파리넬리를 이용하지만 기교만 있는 형의 얄팍한 음악에 환멸을 느낀 파리넬리는 헨델의 음악을 노래하고 싶어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알렉산드라는 파리넬리를 위해 헨델의 악보를 훔쳐내기에 이른다. 그러자 리카르도는 동생 곁을 떠나 작곡에 전념한다.

이 무렵 헨델은 리카르도의 입을 통해 거세의 비밀을 듣게 된다. 카스트라토의 기교와 인기를 경멸했던 헨델은 자신의 곡을 노래하러 무대에 오르는 파리넬리의 면전에서 거세의 내막을 폭로한다. 하지만 진정한 음악을 원하는 파리넬리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신의 목소리'로 위대한 마지막 공연을 선사한다.

제라르 코르비오 감독은 우아하고 화려한 바로크 시대의 특징을 스크린 위에 설계하고 황금빛으로 장식된 극장과 무대 위의 공연, 객석을 메운 귀부인들의 복장과 화장, 카스트라토의 육체미를 통해 당대를 지배했던 아름다움을 재현한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이 영화의 음악감독을 맡은 지휘자이자 하프시코드 연주자 크리스토퍼 루세는 과학의 힘을 빌린다. 카운터테너와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컴퓨터로 합성해 파리넬리의 목소리를 성공적으로 재창조한다. 이 영화로 인해 너무나 유명해진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의 아리아 〈울게 하소서〉를 비롯하여 바로크 시대의 음악 가운데 인기 있는 곡과 생소한 곡들을 적절히 배합시킨다. 하세의 오페라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중 포로의 아리아와 페르골레지의 '살베 레지나' 등도 아름답다. 덕분에 이 영화는 1995년 골든 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비롯하여 다섯 영화제에서 수상했으며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른다.

인간적인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든 견뎌내기 힘들다. 그러나 쌓인 절망들이 재능 있는 사람의 고뇌와 창작에 의해 다듬어지면 오히려 훌륭한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 영화 속에서 파리넬리가 '울게하소서'를 부르는 장면이 그토록 유명한 것은 이 장면에서 파리넬리의 모든 절망적인 감정이 아리아를 통해 아름답게 정화되고 그런 힘이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도 적절하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파리넬리〉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는 영화의 장면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인기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 뿐만 아니라 파리넬리의 형과 스승이었던 포포라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바로크음악의 고아한 정취와 영화의 감동을 사운드트랙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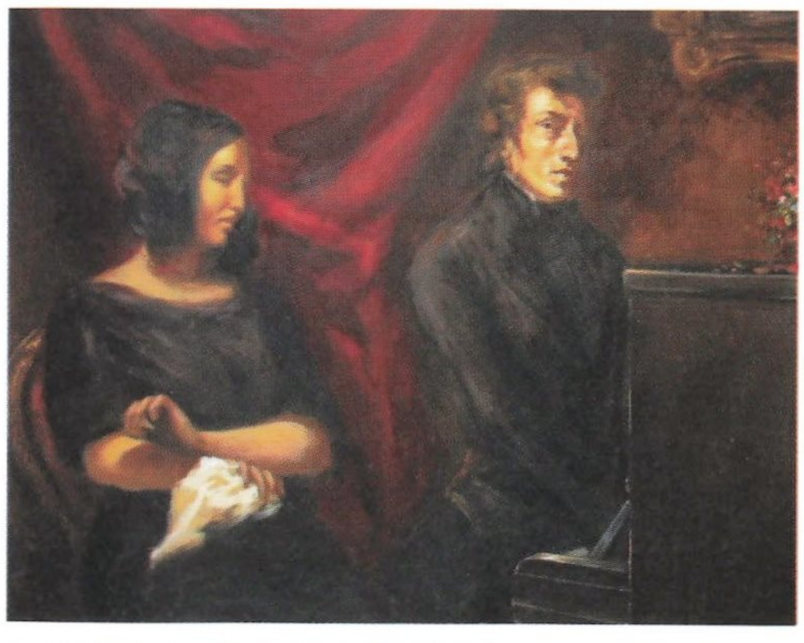
쇼팽의 로맨티시즘

(Romanticism, 낭만주의)

노경원· 피아니스트, 인제대학교 교수,
김해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아래 '쇼팽과 상드' 중 쇼팽의 초상부분



들라크로와가 그린 '쇼팽과 상드' (파리 루브르박물관 소장)

올해는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쇼팽(Frederic Francois Chopin 1810-1849)과 슈만의 음악이 음악계의 커다란 이슈이다. 최초의 낭만주의 또는 고전주의의 마지막 작곡가라는 논란이 있는 슈베르트의 탄생이 1797년이니 피아노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후의 또래 낭만주의 작곡가들- 작년엔 멘델스존, 올해는 쇼팽과 동갑내기인 슈만, 내년엔 리스트 등--이 줄줄이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중세 프랑스 기사의 이야기를 담은 서사시 'le roman' 에서 유래된 '낭만' 이란 용어가 음악분야에서 1810년경부터 등장하는 것도 초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곡가 쇼팽의 탄생 년도인 1810년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쇼팽 스스로는 낭만주의라는 말조차 싫어하며 낭만주의 운동을 피했다는 것이다. 그와 절친했던 낭만주의의 대표 화가 들라크로와(Eugene Delacroix)의 그림조차도 이해는 물론 좋아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때로는 베를리오즈, 리스트, 슈만, 멘델스존, 슈베르트의 작품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한 발언들을 일삼았으니 말이다. 그에게는 바흐와 모차르트만이 존경하는 작곡자였으며 특히 머리모양이나 옷맵시까지 따라할 정도로 벨리니(Vincenzo Bellini)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벨리니의 길고 서정적인 아름다운 선율, 즉 'Cantabile' 주법은 그의 음악 깊이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그의 음악은 풍부한 서정성과 지나칠 정도의 감수성이 섬세하고 우아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고 감성을 자극하는 독특한 화성과 아름다운 선율선이 감상(感傷, melancholy)적인 색채를 창출해 그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내면적인 사고와 감정, 고통 등의 표현을 위해 이전의 형식과 내용을 수정, 이탈한 독창적인 소나타, 스케르쪼 등을 작곡하는가 하면 구조적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즉흥곡, 발라드, 녹턴 등의 장르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더욱이 그의 조국 폴란드의 민속 춤곡인 폴로네이즈, 마주르카 등의 리듬을 예술로 승화시켜 국민주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 쇼팽을 그 누가 낭만주의 작곡가가 아니라 할 것인가?

"바흐는 숫자의 도움과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들을 발견한 천문학자와 같다… 베토벤은 그의 영혼의 힘으로 온 우주를 포용하였다… 나는 그렇게 높게 오르진 못한다. 오래 전에 나는, 나의 우주가 사람의 영혼과 감정이 되기로 결정했다." -쇼팽-

쿠바(Cuba)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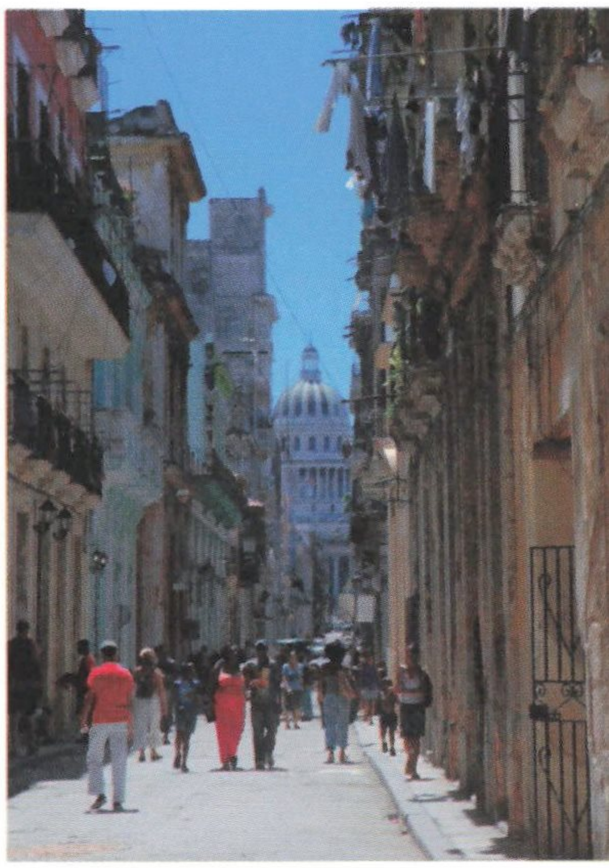
쿠바음악의 진정한 매력, 쏜(Son)

황윤기 •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Buena Vista Social Club)이라는 전대미문의 밴드가 등장한 지도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들은 쿠바 음악의 전통적인 멋을 다시금 각인시키며, 월드뮤직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한 번 절정의 전성기를 맞았던 노대가들이 보여준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음악팬들의 뇌리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도 했다.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아바나(Havana)의 구시가지와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진 말레콘(Malecon:방파제), 그리고 그 풍경들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음악은 피델 카스트로나 혁명가 체 게바라보다 더욱 선명한 쿠바의 이미지로 다가 온다.

쿠바는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에서 아프리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음악적 특성을 보여 준다. 15세기 후반 스페인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유럽으로부터 전파된 질병과 스페인의 학대로 토착 원주민들은 전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 수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왔고, 아프리카의 많은 민속 리듬들을 바탕으로 그 음악적인 틀이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식민지배가 이어지는 동안 스페인 사람들의 라틴적인 기질과 유럽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배합되면서 음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 세계적인 리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맘보, 차차차, 아바네라, 과히라, 룸바, 쏜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쿠바혁명 이전에도,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등장 이후 다시 불어온 열풍 속에서도 쿠바음악의 중심이 되는 음악은 '쏜'이라 할 수 있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최고의 인기곡인 'Chan Chan' 역시 쏜 스타일의 곡으로, 쿠바음악을 대표하는 많은 곡들이 여기에 속한다. 특유의 탄력적인 리듬과 밀도 높은 연주, 그리고 매력적인 선율은 쏜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쿠바 동부에 위치한 오리엔떼(Oriente) 주에서 발달한 쏜 역시 그 원형은 아프리카에서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인상적인 아프리카 리듬 위에 전개되는 매력적인 스페인풍의 선율', 이것이 바로 쏜 음악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말일 것이다. 쏜 음악의 가장 특징적인 악기로는 뜨레스(tres)라는, 두 줄씩 3현으로 이루어진 기타가 있다. 찰랑거리는 음색으로 풍부한 표정과 이국적인 감칠맛을 더하며 쏜 음악의 핵심을 맡는다. 쿠바의 대표적인 그룹들을 보면 섹스떼또(sexteto-6중주), 셉떼또(septeto-7중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의 쏜 음악은 뜨레스와 다양한 타악기가 중심이 된 6중주단이 대부분이었는데 쿠바음악의 황금기였던 1930년대를 지나는 동안 트럼펫이 추가되면서 가장 이상적인 7중주단의 형태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 트럼펫의 추가로 더욱 풍성한 표현이 담긴 음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열정과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쏜은 쿠바 음악 속에 존재하는 여러 음악 스타일의 바탕이 되어 왔고, 쏜 뮤지션들이 남겨 놓은 수많은 명곡과 명연주들은 지금도 쏜이 쿠바의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또한 많은 뮤지션들이 과거의 영광을 매력적으로 재현하며 쏜이야말로 쿠바음악의 진정한 멋이 담긴 음악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 무지치 실내악단 신년음악회 같지만 다르게

신설령 • 음악평론가

이무지치 실내악단이 1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가졌다. 그들의 공연은 여러 가지로 기억된다. 창단 58년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만 12번째 공연이다. 그 명성 때문인지 많은 청중이 음악회를 찾았다.

비발디의 〈사계〉 전문 연주단답게 이 무지치의 첫 곡은 바로크 음악으로 시작하였다. 헨리 퍼셀의 〈요정여왕〉 중 〈샤콘느〉. 샤콘느나 파사칼리아는 바로크 시대의 변주기법으로 짧은 화음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다른 성부에서 새로운 선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작곡방식이다. 그런데 이날의 샤콘느는 곡이 너무 짧아 제대로 감정이입도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려 아쉬움이 있었다.

두 번째 곡은 헨델/요한 할보르센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파사칼리아〉. 바이올린 주자 안셀미의 음색이 무척 아름다웠고 감정표현이 두드러져 인상 깊었다. 비올라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튀는 아우를 받아주고 감싸듯 바이올린과 조화를 이루었다.

이어지는 곡은 피아졸라의 〈항구의 여름〉. 바이올린 솔리스트의 연주가 역동적이었으나 단원들이 그 열정을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보였다. 〈피치카토 폴카〉에 이어진 윤극영의 〈설날〉은 김한기 편곡으로 연주하였는데 특히 곡 중 솔로 부분은 짧지만 솔리스트의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어 좋았다. 〈설날〉 편곡 연주는 한국 청중을 배려한 돋보이는 기획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반부 연주는 대체로 너무 짧은 곡들로 이루어져 밀도 높은 연주로 청중을 긴장시키는 그러한 맛은 없었다.

후반부는 그들의 자랑인 비발디의 〈사계〉 연주였다. 역시 이무지치의 〈사계〉! 이 무지치의 연주는 전체적으로 소리가 유려하며 균질적이다. 이는 우리가 그 이름만으로도 황홀해 하는 스트라디바리, 과르네리, 아마티 등의 최고의 현악기 음색도 일조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



창단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무지치 실내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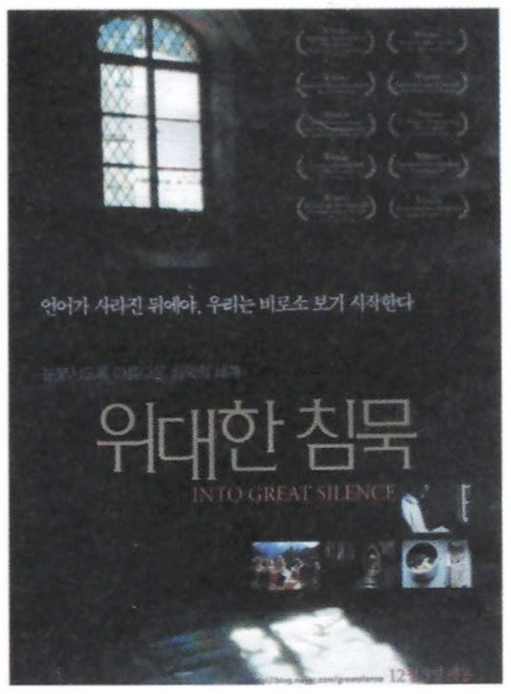
에 걸쳐 음반으로 낸 〈사계〉에 담긴 음악적 연륜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의 티도 보였다. 지휘자가 없는 탓에 간혹 악기간 음량조절이 고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여름' 부분에서 나타난 약간의 실수, 그리고 첼발로 악기 특성상 큰 소리를 낼 수 없기는 하지만 '가을' 2악장에서 투티가 피아니시모로 연주할 때 비로소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 뿐이다.

바로크음악은 일반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비발디의 〈사계〉는 특히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흐 이전의 바로크음악은 성악음악 우위에서 기악음악으로 넘어가는 시대의 음악인 탓에 작곡방식에 반복의 개념이 많고, 또 대부분의 곡이 짧다. 따라서 음악에 몰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연주자와 청중 사이의 긴밀한 호흡의 일치를 방해하는 점이되기도 한다.

바로크음악에서 반복은 '같지만 다르게' 혹은 '다르지만 같게' 반복하여 의미를 생성한다. 이무지치는 프로그램 구성과 연주에 더 많은 관심과 새로운 시도를 도입하여 '같지만 다르게'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대한 침묵(Into Great Silence)과의 만남

김희진 · 영화감독



카르투지오 수도원을 다룬 영화 〈위대한 침묵〉은 속세를 떠나 신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의 순종적이고 절제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알프스 아래에 위치한 이 봉쇄수도원은 신을 향한 기도 외에는 침묵만으로 살아가는 수도자들의 공동체다. 그들의 일과에는 한 끼의 식사와 세 번의 기도시간, 자급자족을 위한 각자의 노동과 찬송 외에는 없다. 철저히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신에 대한 의지만 남긴 이들의 풍경화는 대중영화에선 경험할 수 없는 경외의 느낌을 준다.

필립 그로닝 감독은 이 봉쇄수도원을 영화에 담기 위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 촬영 허가를 신청한 이후 15년 만에야 허가가 나왔고, 2년의 준비와 2년의 촬영, 그리고 다시 1년간 편집을 한 이 영화는 제작 과정에서도 철저한 규칙에 따라야 했다. 오직 감독 한 사람만 수도원에 들어와 촬영할 수 있고, 실제 소리-음향과 기도소리-외에는 어떤 배경 음악이나 해설과 인터뷰 등의 다른 소리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덕분에 영화는 수도자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촬영해야 했던 감독에 의해, 그들의 엄숙한 생활만큼이나 절제된 화면을 담아낼 수 있었고, 특히 음향은 수도원의 빈 공간을 울리는 미세한 잔향의 소리까지 담아내어 신성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위대한 침묵〉은 한편의 명상록과 같은 영화다. 시간에 쫓기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 영화는 세 시간의 정서적 휴식을 제공한다. 동일한 장면의 반복-매일 똑같은 일상의 수도원이기 때문에-에 의해 어느듯 관객은 긴장을 풀고 수면에 빠질 수도 있고, 극장 바깥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온갖 세속적 사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집단 최면 효과와도 같은 이 영화의 관람 체험은 오로지 영화의 내용적 구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절제될 수 밖에 없는 제작 과정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 흥미롭다.

명확한 주제와 메시지를 담지 않는 영화들은 일반 관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들은 관객의 취향에 맞추어 기획되어지고 만들어진다. 그래서 〈위대한 침묵〉과 같은 영화를 만나는 순간, 우린 습관화된 영화 관람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영화들이 소음에 가득 차 있으며, 주의와 주장으로 세계를 재단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이 영화를 통해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삶의 가치가 지금껏 간직해온 자신의 가치 관념과는 다르다는 자극을 받았다면, 이 영화의 형식이 주는 경험을 통해 관객은 최소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영화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대한 침묵〉은 위대한 영화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침묵과 절제된 삶의 모습이 생의 가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는 제공해 준다. 세 시간의 상영시간 동안 느낀 침묵속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 가슴에 조그만 울림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이 영화는 각자에게 삶에 대한 사색의 시간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인간의 몸이 가진-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든 아니든-그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이 영화를 보며 내면으로부터 샘솟는 느낌을 가진 이가 있다면, 〈위대한 침묵〉은 삶의 전향을 위한 하나의 큰(Great) 발걸음이 되어 줄 게 분명하다.



다양한 예술장르가 소통하는
문화매개공간 쌈

최근 들어 도시철도 역사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3호선 92개 역사 중 공연장, 전시장이 들어선 역사만 20여 곳. 특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1, 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1, 3호선 환승역인 연산동역은 상설공연장까지 갖추고 다양한 문화행사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최근 2, 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에 색다른 문화공간인 '문화매개공간 쌈(SSAM)'을 개관, 도시철도에 새로운 문화의 바람을 불어 넣고있다.

수영역 4번출구 입구에 문을 연 '문화매개공간 쌈(SSAM)'은 부산교통공사가 아이디어와 장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사업단 BIKI가 기획과 운영을 맡으면서 지난해 11월 5일 첫발을 내딛었다. 쌈은 다양한 예술장르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이자 예술인과 일반 관객이 소통하는 장으로, 개관 초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간명 '쌈(SSAM)'은 'Suyeong Station Art Meditate Space'에서 첫 글자를 따서 부쳐진 이름. 각종 푸성귀에 밥, 고기, 양념장 등이 어우러져 풍성한 맛을 제공했던 우리 전통음식 '쌈'처럼 음악과 무용, 연극과 영화, 대중음악과 전시, 그리고 창작자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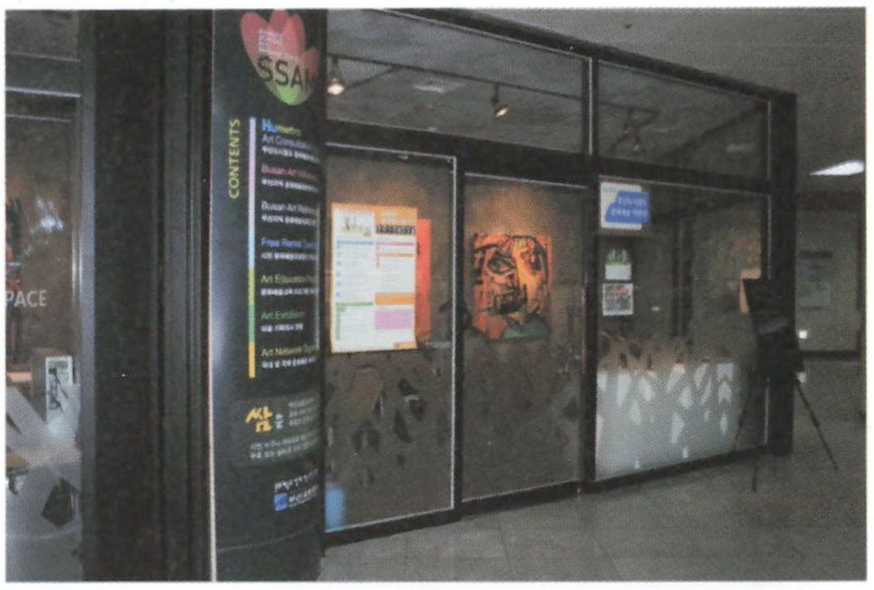
'쌈'은 공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통유리로 그 외관에서 우선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평 남짓한 공간은 은은한 커피향으로 가득하다. 마침 찾아간 날은 개관기념전 '구금란, 한충석 2인전'에 이어 '쌈'이 기획한 두 번째 기획전 '백지연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다. 감성, 또는 직관으로 그려낸 작가 백지연 씨의 인물화 작품들이 공간 한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3월에는 강준석展(3월 5일~3월 18일), 한재용展(3월 19일~4월 1일)이 계속 이어진다.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도시철도를 오가는 시민들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항상 미술작품과 만날 수 있는 365일 상설갤러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쌈에서는 예술인과 일반 관객이 만나 소통하는 수다의 장도 열린다. 이름하여 '쌈 수다. '매주 한차례 마련되는 '쌈 수다'에서는 음악, 무용, 영화,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초청, 주제가 있는 대화로 관객들과 만난다. 다양한 예술장르를 일상적인 대화로 풀어내는 '쌈 수다'는 일반인들이 예술인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로, 회를 거듭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영화 '범일동 블루스'의 영화감독 김희진 씨와 가수 우창수 씨, 김옥련발레단 단장인 무용가 김옥련 씨, 그래피티작가 구헌주 씨, 전 인디밴드 보컬리스트 장현정 씨, 2009 부산작가상을 수상한 시인 권정일 씨 등이 다녀갔고 3월에는 소설가 나여경 씨, 만화가 남정훈 씨, 화가 박경효 씨가 관객들과 한바탕 수다판을 펼칠 예정이다.

또, '쌈'은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쉼터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문화예술정보지에서부터 각종 문화행사 자료집, 전시, 공연 홍보물 등 다양한 자료를 구비해 문화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인디음악의 메카인 '부산'을 알리기 위해 부산지역 인디밴드 및 뮤지션들의 앨범을 구비해놓고 있어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인디음악과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쌈'은 동호회 모임과 세미나, 워크샵 장소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동호회의 문의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글/정복엽)

문화매개공간 쌈(640-7591, cafe.naver.com/artspacessa)









사진은 문화매개공간 '쌈' 내부
(사진제공/문화매개공간쌈)

'천상의 소리' 플루트의 매력에 빠진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

'천상의 소리'라고 불릴 만큼 청명한 소리를 내는 악기 플루트는 그 아름다운 소리만큼이나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악기 중 하나이다.

1999년 '플루트모임'이라는 인터넷 동호회를 결성하면서 첫 발을 내딛은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 역시 아름다운 플루트 선율의 매력에 빠진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모임이다. 현재 2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은 고등학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그 연령층도 다양하다. 현재 리더로 있는 정유정 씨와 트레이너 김지몬, 유혜성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전공자이다. 처음 플루트를 접하는 초보자들은 전공자인 세 단원으로부터 체계적인 수업도 받을 수 있다.

10명을 채 넘기지 못하는 다른 플투트 앙상블과는 달리 많은 회원수는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만의 자랑이다. 인터넷 플루트전국연합동호회인 리더스플루트앙상블 부산지부로 활동하다 2008년부터 부산의 아마추어 플루트연주자를 위한 독자모임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은 매월 1, 3주 토요일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는다. 부산 뿐 아니라 멀리 대구, 울산에서 찾아오는 회원들도 있다.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을 찾아간 2월 4일은 이틀 후 있을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었다.

매년 2월 한차례 갖는 정기연주회는 올해로 벌써 8회째이다. 특히 올해는 보다 향상된 연주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김해시립합창단 단원인 김지수 씨를 객원지휘자로 영입해 연습을 갖기도 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은 10분이 넘는 명곡 '골웨이 환타지'를 마지막 곡으로 연주해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은 정기연주회 외에도 매년 봄 회원 개개인의 기량 향상을 확인하는 솔로무대도 가져오고 있다. 또, 매년 찾아가는 봉사음악회를 통해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 나눔에도 열심이다. 근래 들어서는 연주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초청연주회도 갖고 있다.

플루트 전공자이기도 한 리더 정유정 씨는 전공자 모임과는 또다른 순수한 열정을 지닌 회원들이 있어 끈끈한 정을 더욱 느낀다. 초창기 멤버로 활동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활동을 중지했던 단원 김지몬 씨. 3년 전부터 다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월등해지는 단원들의 기량에 트레이너로써 뿌듯하기만 하다.

현재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의 가장 막내인 고등학교 3학년인 조용범 군.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을 통해 플루트와 첫 인연을 맺은 그는 3년 전인 중학교 3학년때부터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해고 있다. 올해 고 3수험생이 되면서 1년간은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을 떠나게 되어 많이 아쉽고 섭섭하다.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의 가장 연장자인 고한주 씨는 2004년부터 단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동안 독학으로 공부하다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과 인연을 맺었다는 그는 실력이 뛰어난 회원들로부터 체계적인 수업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젊은 단원들과 만남에 동호회 활동이 즐겁기만 하다.

■문의/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Club.cyworld.com/flute)

국립국악원 기획음반

靈山會上, 別曲, 壽齊天

이정필 ·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오늘날 한국에는 서구음악과 전통음악이라는 두 가지 음악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통음악은 서구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 이는 서구음악 유산의 한 갈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해지고 있는 한국전통음악은 관례적으로 두 가지 주요 범주, 즉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궁중음악은 궁중의례 목적에 따라 '제례음악' '연희음악' '군대음악(취타)' 등으로 세분된다. 한편 넓은 의미로 기악(정악, 산조, 농악 등)과 성악(가곡, 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 등)의 두 분야로 나뉘는 등 다양한 음악장르를 가지고 있다. 국악은 또한 불교적인 전통이나 무속적인 전통과 같은 종교음악과 춤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애청음반은 국립국악원이 2003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녹음한 기획음반 '영산회상' 중 평조회상, 별곡, 수제천 시리즈이다. 먼저 화평(和平)과 여유(餘裕)의 음악세계를 느낄 수 있는 평조회상(일명 유초신지곡, 또는 취태평지곡)은 불교적 노랫말 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上佛菩薩)을 노래했던 세 가지의 영산회상 중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관현악 합주음악으로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줄풍류의 영산회상을 4도 아래로 낮추어 변주한 음악으로 모두 8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아주 느린 상령산과 중령산을 시작으로 세령산과 가락덜이는 한배도 중용에 가까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뒤이은 두 곡의 도드리는 단아한 흥취로, 품위 있는 선비의 걸음과 같은 한배의 음악이라 할 수 있다. 타령과 군악은 흡사 고운 나비가 너울거리는 듯한 우아한 장단과 봄버들이 미풍에 낭창거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며 군악의 후반부 권마성에서는 각 악기들이 호령하듯 호쾌함과 장쾌함으로 가득하다. 특히 향피리가 높이 질러내는 선율과 대금의 속삭이는 듯한 대비는 천상궁합의 흥취를 더해준다. 두 번째 음반 별곡(別曲)은 중용(中庸)의 평온함을 담은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별곡이라는 독립된 곡은 우리음악에는 없다. 별곡은 정상적으로 연주하는 줄풍류의 영산회상에 도드리를 곁들여 영산회상과는 구성을 달리하여 연주하는 별도의 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순서는 도드리-돌장. 삼현도드리4장-하현도드리-타령-군악-계면가락도드리-양청도드리-우조가락도드리로 이어진다. 처음을 보통 빠르기로 시작하여 염불도드리 후반부에 빠른 한배로 변하고 타령과 군악을 지나면서 조금씩 빨라지다가 양청도드리에서 아주 빠른 한배의 리듬으로 바뀌면서 음악의 분위기를 일신한다. 우리의 궁중음악 중 가장 경쾌한 분위기와 빠르기의 리듬으로 된 곳이 이 부분이다.

세 번째 음반 수제천의 원곡명은 정읍(井邑)이다. 이 곡은 백제의 옛 노래 정읍사를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했던 음악이다. 수제천은 천년을 넘어온 혼의 소리 궁중음악의 최고봉이자 백미로 일컬어진다. 수제천은 주로 1, 4장이나 1, 3, 4장이 연주되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음반에서는 전장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수제천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 장중함과 역동적 힘에 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은근과 끈기의 영원한 생명력, 혼을 담은 아쟁의 저음, 높은 음역의 당적과 대금의 은은한 갈대 청울림, 해금의 애잔한 호소, 장고의 갈라 치는 소리와 좌고의 응답, 다른 악기들의 주고 받는 연음(連音) 등은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천년을 달려온 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제천은 하얀 구름위에 하늘 높이 우뚝 솟은 고봉준령(高峰峻嶺)의 음악에 비유되기도 한다.

부일신춘음악회 살매 김태홍 선생의 시에 의한 가곡의 밤

3월 1일 월요일 오후 7:00 중극장

교육자이자 시인, 부산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살매 김태홍 선생의 시를 음악으로 만나는 부일신춘음악회 '살매 김태홍 선생(1925~1985)의 시에 의한 가곡의 밤'.

프로그램

설진환/훗날에도 가을에는, 에밀레, 연, 당신이 빛을
유신/자장가, 산딸기
정원상/잊을래도
하순봉/풍장, 꽃이 되어 살자고, 또 울어라 등 수곡

출연

엄정행, 박호송, 공정배, 류형광, 김경희, 윤지영, 박소연
· 피아노/김정우, 서영희

■ 관람료 초대(초대권소지자에 한해 입장)
■ 문 의 부산일보 문화사업부(461-4433)

2010 안주경의 춤 Romio & Juliet zwei 'Versus'

3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교수 안주경의 2010년 춤 'Versus' 부산무대.

툇마루무용단 대표와 툇마루무용단 명예회장, 무천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안주경 교수는 제2회 PAF 안무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Romio & Juliet zwei 'Versus'는 두 가문의 상대적 대립에서 벗어나 남녀의 대립, 이성과 자아의 대립 등을 두고 세상의 작거나 혹은 큰 사건들을 사랑이라는 주제를,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두 명문가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간다.

· 안무/안주경 · 연출/노정식
· 대본/성진수

출연

하정오, 김하나, 이동하, 배민우, 조주연, 황인영, 최우석, 최병훈, 선정찬, 이보람, 서지은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문 의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055-751-6201)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0 신춘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3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0 신춘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2010년 첫 무대이기도 한 이번 무대는 국내 정상급 성악가를 초청, 봄 분위기에 맞는 오페라 아리아를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로시니/도둑까치 서곡
베르디/'운명의 힘' 중 '평화, 평화를, 신이여'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
푸치니/'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푸치니/'나비부인' 중 '아름다운 그 눈' 등 수곡
· 지휘/리 신차오
· 소프라노/이화영
· 카운터테너/샤오 마(Xiao Ma)
· 테너/이정원
· 바리톤/우주호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전경화 귀국 피아노 독주회

3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피아노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전경화의 귀국 피아노 독주회.

전경화는 유학중 불가리아 13th Albena International Youth Music Competition 반주부분 2등, MARIA Youdina International Competition 피아노 듀오부분 3등에 입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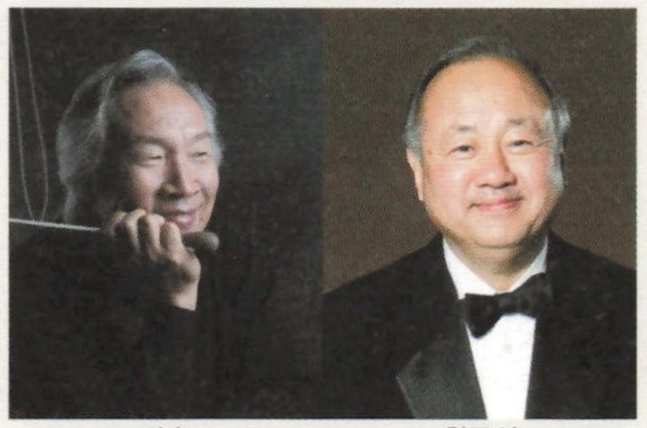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10 제 3번
쇼팽/Andante Spianato & Grande Polonaise Brilliante 작품 22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 관람료 초대
■ 문 의 전경화(010-4471-1128)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제 17회 정기연주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3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곽승 한동일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 100여명으로 창단, 그동안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해온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제 17회 정기연주회.

UKO는 2006년 11월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6회의 연주회를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50명의 어린이들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무대는 2008년부터 대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중인 곽승이 지휘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리벤트리트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이 협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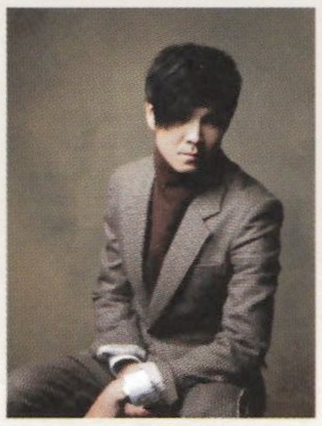
프로그램

주페/경기병 서곡
그리그/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슈트라우스/왈츠 '봄의 소리' 작품 410
오펜바흐/천국과 지옥 서곡
차이코프스키/1812년 서곡 내림마장조 작품 49
· 지휘/곽승 · 피아노/한동일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UKO(011-589-311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리처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노래'

3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따스한 비올라 음색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초청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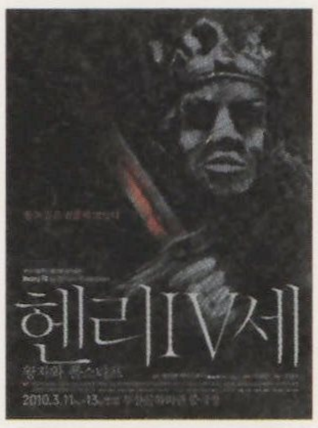
최근 출반한 5집 앨범 'NORE-Songs without words' 발매를 기념, 부산무대를 찾는 리처드 용재 오닐은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하고 그래미상의 베스트 솔리스트 부분에 노미네이트 된 몇 안 되는 비올리스트 중 한 명이다.

프로그램
구아스타비노/장미와 버드나무(아르헨티나 송)
히나스테라/슬픈 노래
빌라-로보스/브라질풍의 바흐 5번 중 '아리아'
멘델스존/무언가 라장조 작품 109
브람스/네 개의 엄숙한 노래 작품 121
라흐마니노프/첼로 소나타 작품 19 등
· 피아노/크리스토퍼 박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시립극단 제 37회 정기공연 헨리 4세 -왕자와 폴스타프

3월 11일-13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신임 수석연출가 김광보와 함께 2010년을 의욕적으로 맞은 부산시립극단이 2010년 첫 무대



로 선보이는 '헨리 4세-왕자와 폴스타프' 부산 초연 무대.

완벽한 구조와 인물 구성으로 사극의 교과서라고 평가받고 있는 '헨리4세-왕자와 폴스타프'는 셰익스피어의 작가적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는 대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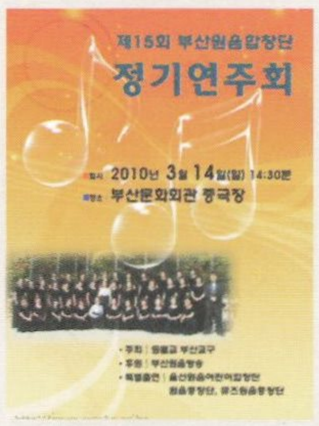
· 작/W. 셰익스피어 · 번역/이태주
· 연출/김광보(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출연
이창직(서울시극단 단원), 박찬영,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염지선, 유성주, 황창기, 이혁우(이상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은주, 허철녕, 김상균, 이미정, 이남희, 조아라, 라세흠, 신동훈, 김두리, 김주연, 김은옥(이상 부산시립극단 비상임단원), 장하근, 유재명, 문호진, 민상오, 주재언, 최하영(이상 객원)

■ 관람료 균일 2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청소년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제15회 부산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3월 14일 일요일 오후 2:30 중극장



1973년 창단 이후 부산시장연말결선, 시민의 날 행사, 부산세계합창올림픽 등에서 수상한 부산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부산원음합창단은 종교인 행사와 생명존중과 평화정착 기도회, 작은 음악회 등에 매년 특별출연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도문, 산나리꽃, 도라지꽃, 언덕에 누워, 예쁘고 밉고, 아리아, 까투리타령, 추천가, 불지품, 몽금포타령, 가고파 등
· 찬조출연/울산원음어린이합창단, 뮤즈원음중창단, 원음중창단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원불교 부산교구(245-0717)

토브여성합창단 제 2회 정기 연주회 토브와 함께 하는 'Praise Carnival'

3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7년 4월 교회 찬양대에서 솔리스트,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로 구성된 토브여성합창단 제 2회 정기연주회.

찬양을 통한 복음 선교를 목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브여성합창단은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개척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John Leavitt의 'Festival Mass' 전곡, 영화 '씨스터 액터' 주제가인 'I will follow Him' 등 우리의 귀에 익은 흑인영가, 찬송가 멜로디를 들려준다.

· 지휘/이일경 · 피아노/김승환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이일경(010-4880-4918)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5회 정기연주회

3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오충근 김진호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해온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제 25

회 정기연주회.

오충근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시벨리우스의 출세작인 제 2번 교향곡과 라흐마니노프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협주곡 제 2번을 들려준다.

협연자 김진호는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나디아 라이센버그와 옥사나 야블론스카야를 사사하면서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프로그램

시벨리우스/역사적 장면 모음곡 제 1번 서곡 작품 25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
시벨리우스/교향곡 제 2번 라장조 작품 43

· 지휘/오충근 · 협연/김진호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학생 전석 50% 할인)

■ 문 의 문지은(010-8508-8310)

부산음악협회 제 10회 신춘음악회

3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 지역 대학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우수연주자들이 펼치는 부산음악협회 제 10회 신춘음악회.

고신대학교 최재현(성악), 동아대학교 최희경(피아노), 동의대학교 안세범(성악), 허지은(피아노 반주), 부산대학교 구화진(피아노), 문지영(성악), 신라대학교 강석은(피아노), 김가현(플루트), 인제대학교 조은아(성악)가 출연한다.

· 우정출연/김채윤(마림바, 부산예고), 공귀주(바이올린, 부산예고), 김도희(플루트, 신라대학교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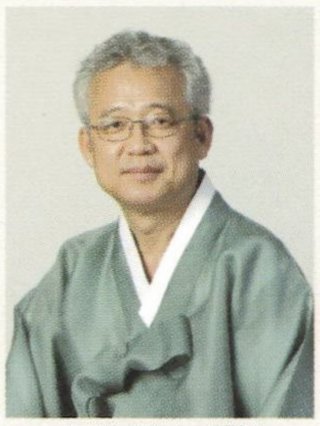
■ 관람료 초대(주최측 문의)

■ 문 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1회 정기연주회 제 7대 수석지휘자 취임 연주회 및 신춘음악회

3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작곡자, 연주자, 지휘자로 우리 국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김철호 지휘자의 취임연주회.


수석지휘자 김철호

신춘의 활력을 담은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위촉곡으로 초연된 '만선', 2005년 위촉곡 '절영의 전설' 등 그동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 곡들 중 국악애호가들의 호응이 높았던 명곡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황의종/만선(1984년 창단 위촉곡)
이준호/성주굿을 위한 국악관현악
백대웅/남도아리랑
강봉천/25현 가야금을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절영의 전설'(2005년 위촉곡)
이경섭/바람의 유희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조갑용(경기도립국악단 악장, 꽹과리 · 비나리), 김남순(부산대학교 교수, 25현 가야금), 박춘석(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피리 · 태평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부산시립합창단 오페라음악극 '상처 입은 영혼 -梨花이야기'

3월 17일-18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용주 김강규

지난해 연극과 음악을 결합한 오페라 음악극 '윤동주'로 합창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부산시립합창단이 '윤동주'의 작곡가 이용주와 마련하는 두 번째 오페라음악극 '梨花이야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가녀린 여인 이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페라음악극 '이화 이야기'는 작곡가 이용주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기록을 토대로 아직 치유되지 못한 역사를 음악으로 재조명한다.

· 대본, 작곡/이용주 · 연출/오정국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주요 배역

김나영(강이화), 강종철(이화 아버지 강문기), 장은경(이화 어머니 김순심), 이정란(영자), 김윤희(순자), 안소영(순이), 유수정(영순), 김성미(순덕), 김진영(일본 순사), 권정은, 김웅태(일본군인 1, 2), 김창돈(마루야마), 김태우(이화 남편 리하이) 외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7회 정기연주회 말러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I

3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10년 구스타프 말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말러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첫 번째 무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지휘, 국내 최고의 말러 스페셜리스트 김문경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말러의 고뇌와 환희, 젊은 날의 오랜 방황을 담은 말러의 교향곡 제 5번을 들려준다. 교향곡 제 5번은 작곡자 스스로 '열정, 비극, 엄숙, 거침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이 가득한 음악'이라고 표현한 역작이다.

김문경은 말러의 생애와 교향곡 분석을 집대성

Progran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한 '구스타프 말러' 3부작을 완간하여 음악애호가와 언론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 36번 다장조 '린츠' 작품 425

말러/교향곡 제 5번 올림다단조

· 지휘/리 신차오(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해설/김문경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7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고마워, 내 마음은 너의 숲

3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하늘아래 그 콘서트 일곱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부산무대.

작곡 및 기타리스트 김민홍과 작사 및 보컬의 송은지로 이루어진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는 2004년 1집 앨범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를 발표한 이후 오랫동안 넓고 두터운 팬층을 다져왔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는 드라마 〈열여덟 스물아홉〉, 〈눈의 여왕〉, 그리고 영화 〈가을로〉에 삽입되었던 'So good-bye'를 시작으로 영화 〈여기보다 어딘가에〉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낮잠'까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CF 음악을 선보여 왔다.

'고마워, 내마음은 너의 숲'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오늘의 음악을 만들기까지 음악팬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시간들을 되새겨본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대학교 개교 64주년 기념 동문 한마음 음악회

3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7:30 대극장

부산대학교 개교 64주년을 기념한 동문 화합의 자리로 부산대학교 효원오케스트라와 동문 음악인들이 출연한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행진곡-댄스-피날레

카푸아/오 나의 태양

푸치니/공주는 잠 못 이루고

김희조/단소와 관현악을 위한 '수상곡'

웨버/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이병욱/천지여 천지여

박범훈/배띄워라 등 수곡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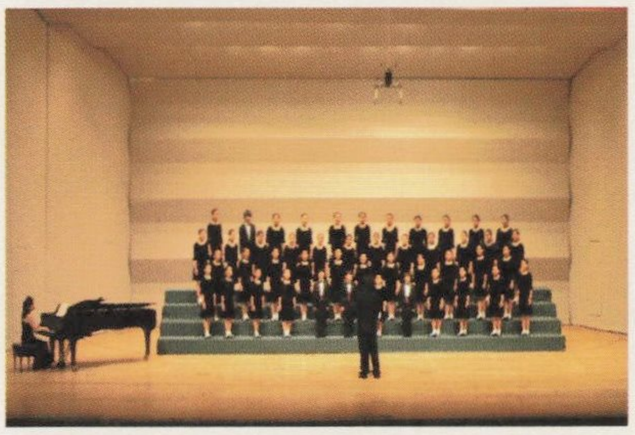
이은민(테너), 이정필(단소, 국립부산국악원 음악감독), 박필은(피아노),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김유섬(소프라노, 창원대학교 교수)

■ 관람료 초대(주최측 문의)

■ 문 의 부산대학교(510-1122)

페르골레지 탄생 300주년 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9회 정기연주회 'Stabat Mater'

3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나폴리 악파의 작곡가로 콘체르트, 기악곡, 종교음악, 세속 성악곡을 남긴 페르골레지(Giovanni Battista Pergolesi 1710~1736)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9회 정기연주회.

페르골레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Stabat Mater(스타바트 마테르)'는 페르골레지가 결핵으로 수도원 요양 중 작곡된 것으로 영감에 찬 비통한 감정과 선율미가 잘 조화되어 있다. 마리아의 슬픔이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차분히 흐른다.

프로그램

페르골레지/Stabat Mater(슬픔의 성모)

이태리 가곡모음(안현순 편곡)/Caro mio ben, Ideale, Nel cor piu non mi sento, La Promesa, Violette, La spagnora, Mattinata, Il Bacio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소프라노 조아라(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카운터 테너 김종영(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8중주

· 특별출연/금성중학교 오카리나합주단(지휘/김창학)

■ 관람료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독우회 제 40회 정기연주회

3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독일에서 공부한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독우회의 제 40회 정기연주회.

이혜승, 김문주, 박윤정, 임소영이 연주한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81a 제 26번 '고별'

프로코피에프/피아노 소나타 작품 14 라단조

엠마뉴엘 샤브리에/즉흥곡, 6인의 작품 중 '환상적인 부레' 등 수곡

· 연주/이혜승, 김문주, 박윤정, 임소영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2010 웰빙콘서트시리즈 I 'Dance in Classic' 바로크 댄스-영혼의 춤, 인생의 변주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 감상과 다채로운 공연의 묘미를 선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Progran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시리즈 I -Dance in Classic' 2010년 첫 번째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지난해 웰빙콘서트 '말러와 11시에 만나요'에서 호흡을 맞춘 말러 스페셜리스트 김문경이 해설을 맡아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프로그램

륄리/터키 의식 행진곡
바흐/관현악 모음곡 제 2번 나단조 작품 1067 중
퍼셀/'디도와 아에네아스' 중
헨델/'리날도' 중
비탈리/샤콘느 사단조
라모/'우아한 인도의 나라' 중
라벨/'쿠프랭의 무덤' 중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해설 및 진행/김문경(음악 칼럼니스트)
· 협연/김동욱(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정은지(플루티스트), 강희영(메조소프라노), 김희쟁(발레리나), 김정은(발레리나), 신선경(발레리나), 김태윤(발레리노)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문주연 바이올린 독주회

3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뮌헨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문주연 독주회.

문주연은 유학중 Mariss Jansons이 지휘하는 Munich Bayerischer Rundfunk 청소년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했다. 귀국 후 독주회, 정경화와 체임버 오케스트라 전국 순회 공연에 참가하며 국내 연주 활동을 시작한 문주연은 정경화 체임버 및 한국 페스티발 앙상블 단원,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사장조 K.301
쇼숑/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시곡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문주연(010-7169-0845)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3월 26일(금)-4월 12일(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소극장, 야외무대 등



2009년 대상수상작 '대숲에는 말이산다'

부산연극계 최고의 축제인 제 28회 부산연극제. 2010년은 극단 나비소풍의 축하공연 '레인보우 코리아'를 시작으로 7개의 경연작품, 6개의 자유 참가작품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공연일정

▶ **개막축하공연 극단 나비소풍 '레인보우 코리아'**

3월 26일-28일 금요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중극장

언젠가는 아들 선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친엄마 란과 엄마를 그리는 선우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전해주는 이 작품은 우리 전통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의 다국적 음악과 문화를 체험하며 가정과 사회의 문제들을 열린 마음으로 풀어나간다.

· 작/마지인 · 연출/김종연
· 출연/반민정, 추민영, 정유진, 이호영, 정경아, 홍성택, 홍근표, 정재은

■ 관람료 1층 40,000원 · 2층 30,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 **축하공연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치지 않고서야'**

3월 26일-4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홀로 두 자녀를 길러내고 언행불일치 두 자녀를 기다리다 결국 홀로 된 어머니가 가장 가깝지만 먼 엄마라는 이름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 작, 연출/김민우
· 출연/황자미, 박상민, 최윤희, 장승현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626-3703)

▶ **경연작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

3월 30일-31일 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제 2회 전국 창작희곡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고연옥의 작품. 수한과 진한, 기영의 삶을 통해 일제 감정기 아픈 역사를 되돌아본다.

· 작/고연옥 · 연출/강성우
· 출연/허정현, 권병익, 신동훈, 배진만, 강봉금, 황유나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하늘 개인날(646-0326)

▶ **경연작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The Solar System'**

4월 2일-3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작가는 보이저라는 인물을 창조한 후 그에게 '인생'이라는 그랜드 미션을 부여한다. 태양계를 여행하던 보이저는 학교를 다니고 연애를 하고 은행에 취직한다.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사채업자등을 만나면서 보이저의 세상이 변하게 된다.

· 작, 연출/김지용
· 출연/최은영, 김정순, 엄준필, 장민, 금정원, 도정우, 박선희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242-8198)

뮤지컬 모차르트! (Das Musical Mozart!)

3월 27일-28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세계적인 극작가 미하엘 쿤체와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가 만든 오스트리아 비엔나 뮤지컬 '모차르트!' 부산무대.

Progran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인간 모차르트의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들을 이용하는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음악 후견인이자 라이벌 인 대주교, 모차르트의 연인 콘스탄체 등 다양한 인물들의 캐릭터를 살려낸 뮤지컬 '모차르트!'는 28인조 오케스트라가 선보이는 클래식과 락이 융합된 음악, 500여벌의 화려한 의상, 당시를 고증하는 특수 가발과 소품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팝페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임태경, '삼총사'와 '웨딩싱어'로 사랑 받는 뮤지컬 스타 박건형, 차세대 뮤지컬 배우 박은태가 자유를 갈망하는 '모차르트!'의 주인공 볼프강으로 부산팬들을 만난다.

· 프로듀스/엄홍현 · 번역/박영민
· 연출/유희성
· 음악감독/이성준

출연

임태경, 박건형, 박은태, 김준수, 민영기, 윤형렬, 서범석, 배해선, 정선아, 김희선, 신영숙, 이경미 외

■ 관람료 VIP석 130,000원 · R석 110.000원
S석 90,000원 · A석 5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프라미스컴퍼니(1599-6171)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7회 정기연주회

3월 29일 월요일 오후 8:00 대극장

2003년 사단법인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어 대외적인 입지를 굳힌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연주력과 음악적 열정으로 승부하며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하이든/피아노협주곡 제 11번 라장조
치마로자/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다장조 등
· 지휘/유호석(전 신라대학교 교수, 부산원로음악협회 회장)
· 협연/유영욱(피아니스트), 장극태(플루티스트), 박찬엽(플루티스트)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장은정(017-842-6688)

YMCA NEO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3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09년 7월 젊은 연주자들로 새롭게 창단된 YMCA NEO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드보르작/교향곡 제 9번 마단조 '신세계로부터' 이수인/내 맘의 강물 등 수곡
· 지휘/홍성택
· 협연/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지호
■ 관람료 균일 50,000원
■ 문 의 YMCA 필하모닉오케스트라 (440-3372, 070-8613-7308)

(사)춤다솜무용단 2010 '비우니 향기롭다'

4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89년 세종대 한국무용과 출신들을 주축으로 발족된 춤다솜무용단의 부산무대.

이번에 선보이는 '비우니 향기롭다'는 2007년 순수창작무용 '하루'를 선보이진 3년 만에 선보이는 무대로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린 것인지 상실과 망각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일상의 혼돈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 원작, 대본/박범신(작가)
· 총괄 안무 및 연출/양선희(세종대학교 교수)
· 연극 연출/박병수(동국대학교 연극과 박사과정)
· 특별출연/조광(원로 무용가), 이재은(탤런트), 조대식, 김용철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 의 (사)춤다솜무용단(02-3408-3519, 011-9634-6401)

제 11회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해설이 있는 관악의 대향연-

4월 3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1997년 금관 5중주로 출발한 이래 금관 10중주, 윈드오케스트라로 확대 개편하며 새로운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 트럼펫 수석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희찬의 협연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관악의 대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Possano Galante/Raise of the Son
Benjamin Yeo/Legend of the Ancient
Toshio Mashima/Piano Piano Piano
Warren Barker/Miss Saigon 등
· 지휘/손영진(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
· 협연/안희찬(KBS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김두천(010-2559-7569)

MUSIC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2일 김문주, 김진희 피아노 듀오연주회
'독일 피아노음악으로의 초대'

부산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문주와 김진희가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다단조 BWV.826
베토벤/소나타 제 26번 작품 81a '고별'
브람스/헝가리무곡

▸ 9일 앙상블 블루 초청연주회 '추억속의 영화음악'

1991년 도미넌트앙상블로 창단, 2005년 단체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앙상블 블루 초청연주회.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음악으로 꾸며진다.

· 연주/박광식(바이올린), 최미경(바이올린), 박희철(콘트라베이스), 한경수(피아노)

▸ 16일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6
'코지 판 투테'

소프라노 박은미, 이정윤, 메조소프라노 한현미, 테너 조윤환, 바리톤 김정대, 채범석이 출연,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23일 천사가수 양선호 콘서트
'백혈병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음악세상 창립회원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희망,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천사가수 양선호 콘서트.

▸ 30일 소프라노 김지현 독창회
'봄에 듣기 좋은 노래들'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부산대학교 음악대학원 성악과, 롱아일랜드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김지현 독창회.

봄에 어울리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김지현

■ 관람료 균일 10,000원(16일, 23일 공연은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가톨릭센터(441-3788, www.bccenter.or.kr)

야나첵 스트링 콰르텟 초청연주회

3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체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실내악단 야나첵 스트링 콰르텟 초청연주회.

1947년 창단된 야나첵 스트링 콰르텟은 체코 작곡가 야나첵의 연주기법을 완벽의 경지로 올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현악4중주를 위한 아다지오 '엘레지'
슈만/피아노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야나첵/현악4중주 제 2번 '비밀편지' 등 수곡

· 피아노/김정화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6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가야금병창 '내고향의 봄', '꽃이 피었네', 대금과 구음시나위, 통영교방진춤, 실내악 '춘설', 풍류장구춤, 사물놀이 등

▸ 13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동래한량무,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기악병주, 실내악 '춘무', 봄노래 민요연곡, 부채춤, 설장구가락

▸ 20일 프로그램

춘앵전, 가야금 병창 '꽃타령', 생소병주 '수룡음', 진주교방굿거리춤, 실내악 '봄이 뜰 앞에 왔는데', 신민요 '노들강변' '동백타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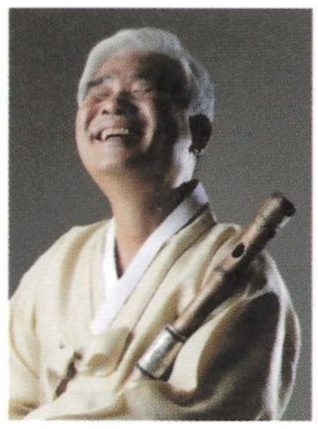
▸ 27일 프로그램

수요남극, 태평무, 시조 '동창이…', 실내악 '춘광여정', 승무, 신민요 '꽃피는 새동산' '휘어능청' '능수버들', 살풀이, 판굿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 9일 조창훈 대금연주회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예능보유자인 조창훈 초청연주회. 광주시립국악원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조창훈은 이번 무대에서 대금독주 특유의 멋과 색다른 흥취가 있는 대금정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현악영산회상 중 '하현도드리~군악', 상령산 대금독주, 생소병주 수룡음, 대금독주 '청성 자진한잎' 등

▸ 16일 조일하의 성악

국립국악원 정악단 부수석으로 있는 조일하 초청무대.

프로그램

거문고병창 우조, 계면 이수대엽, 남창 언락, 정재 '춘앵전', 가사 '춘면곡', 시창 '십이난간' 등

▸ 23일 김용호의 아쟁과 구음-춤과 거닐다

경북도립국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악장으로 있는 아쟁주자 김용호 초청무대. 아쟁연주와 구음, 전통무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아쟁과 승무, 아쟁과 산조춤,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 구음과 동래학춤, 구음과 남해안별신굿 '용선춤'

▸ **30일 다시 처음으로…이정화의 홀춤**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 제 97호 살풀이 전수자로 활동하는 춤꾼 이정화의 전통춤판.

프로그램

진주검무, 고성오광대 말뚝이춤, 동래한량춤, 승무, 통영오광대 문둥춤, 봉산탈춤 팔목중춤 중 일목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10일 벨리씨미 정기연주회 '봄의 유혹'**

신라대학교 성악 전공 동문들의 모임인 벨리씨미가 마련하는 신춘음악회.

· 출연/소프라노 장은녕, 이윤순, 이은미, 방미애, 홍경아,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이지영
· 피아노/임소영

▸ **17일 펠리체와 함께하는 라이브 콘서트**

소프라노 구현진, 김현주, 엄말영,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우원석, 박훈, 바리톤 김대성, 베이스 정용욱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주제곡 및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 피아노/공소현

▸ **24일 부산여자대학 음악과 -Festival of Spring Song**

바리톤 김성국, 조현숙, 소프라노 김정애, 옥혜나, 정성희, 진광숙, 차성실, 메조소프라노 박지민이 출연, 봄을 노래한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김정우, 길금혜

▸ **31일 제 2회 피아노소사이어티 클랑 정기연주회 '베토벤 4대 소나타의 밤'**

피아니스트 민강은, 김병기, 양정은, 신문정, 김정우, 길금혜가 출연,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제 13번 '비창', 제 14번 '월광', 제 23번 '열정', 제 26번 '고별'을 들려준다.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집시음악의 비루투오소 세르게이 트로파노프 & 집시앙상블 초청공연

3월 11일 목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대극장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 속에 동양적인 향기까지 녹아있는 집시 바이올린의 세계적인 거장' 세르게이 트롭파노프 초청 공연.

몰도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를 역임하기도 한 세르게이 트로파노프는 2006년과 2008년 두차례 내한공연과 CF, 드라마 삽입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특별출연/여성재즈보컬 웅산

■ 관람료 화이트석 50,000원 · 블루석 40,000원 레드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주)뉴페이스컴(1644-4868)

피아니스트 김성숙, 안준희의 집중탐구시리즈 III 독일 낭만음악의 세계

3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



김성숙 안준희

니스트 김성숙과 부산대학교와 프랑스 에꼴 노르말 고등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메쓰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안준희가 함께하는 '독일 낭만음악의 세계'.

독일 낭만주의의 세 거장 슈만과 브람스, 슈베르트의 작품을 들려준다.

· 협연/테너 김지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예술기획 마루(02-3141-5729)

바리톤 김준한 귀국 독창회

3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경원대학교를 졸업한 후 이태리로 유학, Giuseppe Martucci 국립음악원과 Licino Refice 국립음악원, 로마 A.I.D.M 아카데미, A.I.Arts 아카데미를 졸업한 바리톤 김준한 귀국 독창회.

김준한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드러운



음성과 세련된 무대매너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아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중 '나는 새 잡는 사람'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중 '정지!'
페라리/바리톤을 위한 두 개의 노래 등 수곡
· 찬조출연/소프라노 김유미 · 피아노/김민정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영음예술기획(02-581-5404)

부산 우드윈드 앙상블 제 6회 정기연주회

내 악기를 소개합니다 시즌III '바이올린'

3월 13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5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와 금정수요음악회, 부산시립미술관 '토요라이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의 6번째 정기연주회.

· 연주/원준연(리더 · 클라리넷), 최낙주(플루트), 박지연(오보에), 이민정(혼), 장보영(바순)
· 협연/김지윤(바이올린), 김성희(피아노)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부산우드윈드앙상블(701-7469)

김혜령 바이올린 귀국독주회

3월 13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차이코프스키음악원을 졸업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Slavyanskaya mujika 국제 음악 콩쿠르 2위, 이탈리아 베로나 MusicalPerformance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그랑프리를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혜령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리스트-슈만/헌정
윤이상/리나가 정원에서 등 수곡
· 피아노/김나영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혜령(524-6570)

클레프 트라이아드 트리오 초청연주회

3월 15일 월요일 오후 8:00 글로빌아트홀



현재 독일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일 국적의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Dorothea Suh와 폴란드 출신의 첼리스트 Karolina Krajecki, 일본 출신의 피아니스트 Hitomi Shiraishi로 구성된 클레프 트라이아드 트리오를 초청, 테크니컬하면서도 풍부한 감성의 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트리오 제 5번 작품 70 '유령'
신영순/피아노 트리오 '어화둥둥'
브루흐/피아노 트리오 제 5번 등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3/8일까지 예매시 20% 할인)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한낮의 유U; 콘서트 녹색의 교향악

3월 16일 화요일 오전 11:00
서면롯데호텔 아트홀

새봄의 환희를 들려줄 한낮의 유U; 콘서트 신춘음악회.

제 8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신인상, 제 11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뮤지컬배우



배해선

배해선과 소프라노 장은녕, 테너 홍지형,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이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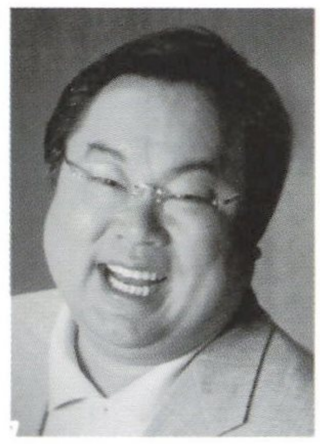
프로그램

스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
베토벤/교향곡 제 6번 작품 68 '전원'
카푸아/오 나의 태양 등 수곡
· 연주/YMCA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 관람료 균일 1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테너 임웅균과 함께하는 영화음악회

3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임웅균

'황금의 테너'라는 호평을 받으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테너 임웅균과 화려한 테크닉의 콜루라투라로 주목 받고 있는 소프라노 김수연이 출연, 영화 속에 등장하는 클래식음악과 영화주제곡을 들려준다.

· 연주/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박상현)

■ 관람료 전석 초대
■ 문 의 스테이지원(02-780-5054)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연주회

3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네 손가락으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 이희아 초청연주회. 선천성 장애를 딛고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아는 전국장애인예술제 최우수상, 장애극복 대통령상, 올해의 신지식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환희의 송가' 중 '기뻐하며 경배하세'

세느빌&투상/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파헬벨/캐논변주곡

쇼팽/즉흥환상곡 등 수곡

■ 관람료 R석 30,000원 S석 25,000원 · A석 20,000원

■ 문 의 tw컴퍼니(070-8654-0377)

김신환 교수와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3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김신환

벨 칸토 창법의 대가이자 서울시립오페라단 초대 단장, 전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사장, 전 영남대학교 음악대학장을 역임한 테너 김신환과 소프라노 김동희, 김옥, 박영희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 피아노/박미은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10,000원

■ 문 의 김옥(010-5502-2875)

모차르트의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3월 20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어린이와 가족관객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각색한 모짜르트의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타미노왕자가 파미나 공주를 찾아 떠나는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가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어우러진다.

· 총예술감독/안지환 · 연출/안호원

· 출연/소프라노 김정원, 이수진, 테너 황성학, 바리톤 김정대 외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문 의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알피네 플룻앙상블 창단연주회

3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플루티스트 김성은과 그의 제자 최영수, 정귀순, 이원진, 이은경, 전은진, 김미성, 김자욱으로 결성된 알피네 플룻앙상블 창단연주회.

· 음악감독/김성은

· 리더/김자욱

■ 문 의 김자욱(016-560-0036)

소프라노 김현애 독창회

3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성악콩쿠르 1위, 고태국 성악콩쿠르 여자부문 1위에 입상한 바 있는 소프라노 김현애 독창회.

프로그램

바흐/누가복음서 1장 48절 '비천함을 굽어 보소서'

멘델스존/아, 촉촉한 서녘바람아

스트라우스/너는 내 가슴의 작은 왕관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미카엘라 아리아' 등 수곡

■ 문 의 김현애(010-7667-8786)

경남 챔버 쏘사이어티 부산연주회

3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0년 3월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역량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실내악 전문 연주단체인 경남 챔버 쏘사이어티 부산연주회.

프로그램

피아졸라/피아노트리오 '사계', 리베르탱고

기데온 클라인/바이올린과 비올라 이중주

에른스트 도흐나니/피아노5중주 다단조 작품 1

■ 문 의 김성은(010-8549-8265)

제 7회 멜로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월 27일 토요일 오후 6: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아마추어연주자들로 창단된 멜로스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복지관, 병원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해왔다.

· 지휘/윤상운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이승아(010-6432-0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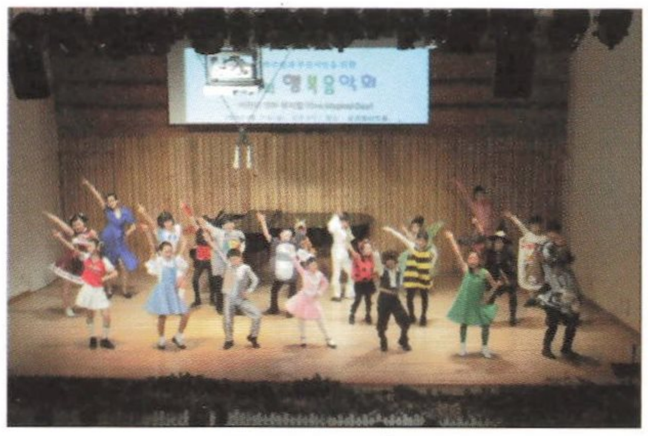


Progran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부산 시민과 함께 하는 제 27회 글로빌아트홀 행복음악회

3월 28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글로빌아트홀이 매주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시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클래식 연주 및 합창,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다.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정문정 피아노 독주회

3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미국 루즈벨트대학교 석사과정, 드폴대학교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루즈벨트대학교 콘체르토 콩쿠르, 전미 교수협의회(MTNA)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는 피아니스트 정문정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무진스키/토카타 작품 15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 32번 작품 111 등

■ 문 의 정문정(010-5797-9755)

부산국악작곡가회 제 9회 정기연주회

3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지역 국악작곡가들이 창작국악의 활성화를 위해 결성한 부산국악작곡가회의 9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황의종/그 색시 서럽다, 꿈밭에 봄마을
백규진/대원사의 밤
조익래/변주곡 '엄마야 누나야'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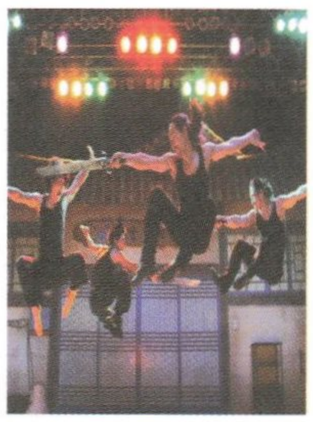
· 작곡/황의종, 백규진, 조익래, 이은경, 박선영, 김현정

■ 문 의 부산대학교 국악학과(510-1739)

PLAY

2010 점프 부산

2009년 9월 10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 · 공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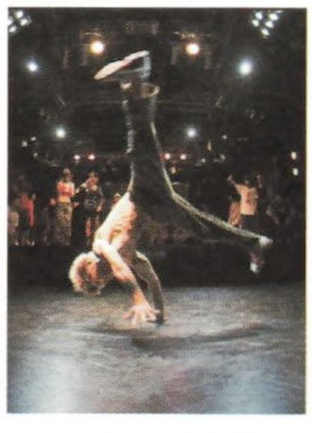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9년 12월 18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B씨어터



비보이와 사랑에 빠진 발레리나가 비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B씨어터(804-2252)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1월 7일(목)-3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영웅이 아닌 인간 이순신을 풍자와 해학으로 새롭게 해석한 코믹 뮤지컬.

· 예술감독/이현규 · 연출/황두수

■ 관람료 균일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뮤지컬 락시(樂時)터 -즐거운 시절

1월 8일(금)-3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낚시터에서 만난 다양한 인간군상들과의 헤프닝을 통해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는 창작뮤지컬.

· 작, 연출/위성신 · 작사, 작곡/강민호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내가 가장 예뻤을 때

1월 23일(토)-3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AN아트홀.Red

남자를 믿지 못해 결혼을 꺼리는 막내딸 시집보내기에 나선 엄마의 가슴찡한 사랑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 작, 연출/오승수
· 출연/안꽃님, 강유진, 이현정, 이정민, 문주희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AN아트홀.Red(758-9035)

극단 아센 상상하는 여자

2월 5일(금)-3월 1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Progran Guide 기타공연 안내

>> 음악 >> 연극 >> 영화 >>

깜찍하고 당돌한 주인공의 상상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네 사람의 좌충우돌 로맨스극 '상상하는 여자'.

· 연출/호민

· 출연/호민, 구민주, 김희지, 이성원, 안수정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연극 사흘

2월 26일(금)-3월 7일(일) 평일 오후 4: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6:00(3/8일 공연없음) 청춘나비 소극장

헬렌 켈러와 그의 스승 앤 설리반의 실화를 바탕으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주인공 도리의 자아찾기를 그린 연극 '사흘'.

· 원작/헬렌 켈러 · 대본/이홍림

· 연출/박태룡

· 출연/어주선, 최정아, 김아람, 옥수연, 김소진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장애인 12,000원

■ 문 의 나다문화사업단(242-9402)

극단 사계 제 62회 정기공연 뮤지컬 Love is 두번째 이야기…

3월 3일(수)-24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화요일, 3/25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사랑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두 남녀의 알콩달콩 사랑이야기를 그린 창작뮤지컬.

· 작곡, 연출/김만중

· 출연/박현민, 박지훈, 박유진, 김정환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극단 사계(611-8518)

뮤지컬 스켈리두

3월 3일(수)-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자신의 곡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순간에서 모든 것을 버린 아이돌 스타 이수민과 작사가 유희가 만들어가는 로맨틱 뮤지컬.

· 작/신희붕

· 연출/김대환, 김태균

· 출연/박태성, 유환웅, 조헌정, 김샛별, 박채은 외

■ 관람료 균일 40,000원(3월 3일-5일 프리뷰 공연 예매시 50% 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미니티켓(1600-1716)

뮤지컬 헤드윅

3월 5일 금요일 오후 8:00, 6일-7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MBC롯데아트홀

가수 헤드윅의 삶의 여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가수의 삶과 사랑,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낸 뮤지컬 '헤드윅'이다.

■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청소년, 대학생 S, A석에 한해 5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보잉보잉 1탄

3월 5일(금)-4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솜사탕아트홀 1관



바람둥이 남자주인공이 세명의 각기 다른 스튜디어스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그린 폭소 코믹극.

· 작/마르꼬 까블레디 · 번역, 연출/손남목

· 출연/김명철, 이현희, 김윤환, 김희준, 정주희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솜사탕아트홀(1566-7050)

제 2회 가마골 젊은 연출가전 1 큰 길가에서

3월 5일(금)-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근대 사실주의 연극의 선구자 체홉 탄생 150주년을 맞아 국내 초연무대로 선보이는 연극 '큰 길가에서'.

제 2회 가마골 젊은 연출가로 선정된 양승희의 연출로 선보인다.

국내 최고 전문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글로빌아트홀

첼로 김미나 줄리어드, NEC 동시합격(올해) - 2009년 10월 5일 글로빌아트홀에서 녹음한 CD제출곡으로



| 녹음사례 | 피아노 송정민 : 이스트만음대 수석합격 4년 전액 장학생, 바이올린 이슬기 : 피바디음대 합격, 성악 김혜원 :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합격 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글로빌아트홀 녹음 및 대관 문의 : 051-505-5995

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 드라마투르기/이윤택
· 출연 /염순식, 서승현, 이동준, 김호윤, 박미영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15,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어린이 뮤지컬 사과가 쿵&우리 아빠가 최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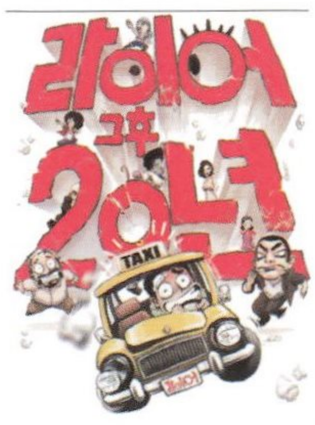
3월 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7일 일요일 오후 1:00, 3:30 시민회관 대극장



하늘에서 떨어진 초대형 사과를 사이좋게 나눠 먹는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 '사과가 쿵'과 천하무적 아빠의 활약상을 그린 '우리 아빠 최고야' 등 두 편의 창작뮤지컬이 선보인다.
· 연출/송민신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극단 예인(1566-9921)

라이어 2탄 '그후 20년'

3월 12일(금)-3월 31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두명의 부인과 자녀를 둔 택시운전사 주인공의 좌충우돌 이중생활이 스피드한 전개와 거듭되는 반전 속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폭소 코미극.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뮤지컬 진짜진짜 좋아해

3월 1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4일 일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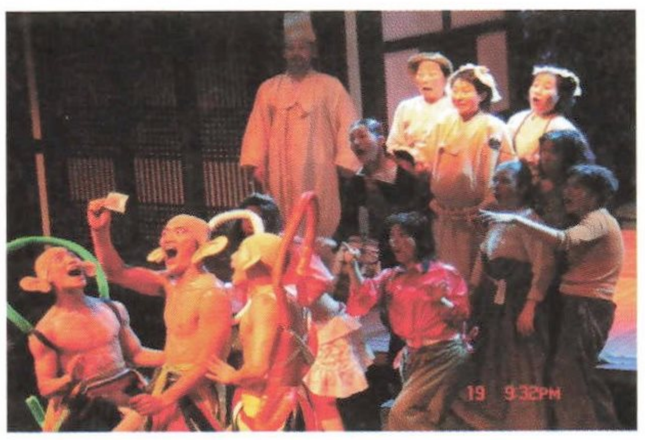


40대 중년 커플과 10대 젊은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7080 세대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낸 창작뮤지컬.

뮤지컬배우 박해미와 오랜만에 뮤지컬에 도전장을 낸 신애라, 오정해, 변우민, 김진수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 작/오은희 · 연출/김장섭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미니티켓(1600-1716)

연극 오구

3월 19일(금)-4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일 · 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올해로 개관 24주년을 맞는 가마골소극장의 다시 보고 싶은 연극 1위로 선정된 연극 '오구'.

1989년 초연 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오구'는 노모의 장례식을 둘러싼 한바탕 소동과 그로 인한 감동과 화해를 그린 작품이다.
· 작, 연출/이윤택
· 출연/남미정, 하용부, 배미향, 김미숙, 윤종식, 김철영, 홍선주, 변진호, 외
■ 관람료 일반 30,000원 · 대학생 25,000원 초중고 20,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미누, 시즈위 밴지를 만나다

3월 24일(수)-5월 15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1970년대 인종격리정책으로 거주와 노동의 이주가 자유롭지 못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들의 삶을 그려냈던 남아공 작가 아돌 후가드의 원작을 새롭게 각색, 오늘날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 연출/이성민
· 출연/이현식, 김재형, 이도현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 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3월 26일금요일 오후 7:30, 27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8일 일요일 오후 2:30, 5:30 시민회관 대극장



'트랩 페밀리 싱어즈'로 알려졌던 오스트리아 폰 트랩 가족의 실화를 내용으로 한 가족뮤지컬의 대명사 '사운드 오브 뮤직'.

정상급 성악가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들이 출연, 탁월한 가창력과 연기력, 주옥같은 선율로 감동을 선사한다.
· 예술감독/김상효 · 연출/심문섭
■ 관람료 도레미 50,000원 · 마리아 40,000원 에델바이스 30,000원(20인 이상 단체 40% 할인, 학생 30% 할인)
■ 문 의 이솔리스티(070-8874-1567)

2010 제 28회 부산연극제

3월 26일(금)-4월 12일(월) 시민회관 소극장

▸ **자유참가작 극단 사계 'Love is…2'**

3월 26일 금요일 오후 7:00, 27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사랑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두 남녀의 알콩달콩 사랑이야기.

· 작, 연출/김만중

· 출연/박현민, 박지훈, 박유진, 김정환

▸ **경연작 극단 에저또 '네메시스'**

3월 29일-30일 월-화요일 오후 7:30

사랑은 없다고 믿는 여자와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는 남자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

· 작/김지연 · 연출/최재민

· 출연/김지연, 이지훈, 김상호, 전진경

▸ **경연작 극단 레파토리시스템 '늙은 날의 초상'**

4월 1일-2일 목-금요일 오후 7:30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소외을 그린 '늙은 날의 초상'.

· 작/강진순 · 연출/이기원

· 출연/변지연, 우명희, 유상흘, 진선미

▸ **경연작 극단 도깨비 '1.22**

4월 4일 일요일 오후 6:00, 5일 월요일 오후 7:30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그린 작품.

· 작, 연출/김익현

· 출연/김익현, 전민수, 백정임, 차일환, 정다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www.bshteater.or.kr)

연극 오월엔 결혼할꺼야

3월 26일(금)-5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미래를 고민하고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져가는 스물아홉 미혼여성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연극 '오월엔 결혼할꺼야'.

· 작/김효진

· 연출/홍주연

· 출연/이지선, 윤혁진, 성아름, 서현아, 박보경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가족뮤지컬 우렁각시

3월 27일-2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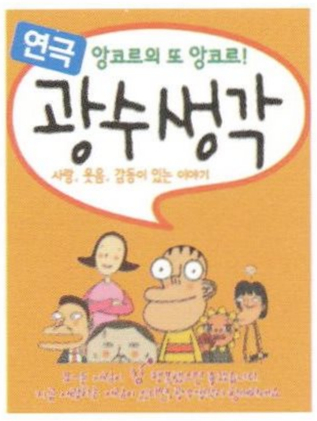
전래동화 '우렁각시'를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이 함께하는 가족뮤지컬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

■ 관람료 균일 15,000원(전화예매시 3,000원 할인)

■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연극 광수생각

3월 27일(토)-4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1997년부터 일간지에 연재되어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을 이끌어냈던 만화 '광수생각'을 원작으로, 특별하지 않아 더욱 공감가는 우리네 일상을 따뜻한 감동과 사랑으로 그려낸 작품.

· 연출/김민교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미니티켓(1600-1716)

DANCE

크루즈 외국인 대상 전통민속 기획공연 舞 神 처용

3월 5일 금요일 오후 3: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부산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한 기획공연 '舞神 처용'.

영남 굿이 원형인 남해안 별신굿 인간문화재인 정영만과 봉산탈춤 명인 박영수, 우리시대 최고의 춤꾼인 김운태, 이정희 등이 출연, 가무에 능하고 액운을 물리쳤던 처용을 등장시켜 한바탕 굿판을 펼친다.

· 대본, 연출/진옥섭 · 음악감독/정영만

· 연희감독/김운태 · 안무/박영수

■ 문 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2)

한 · 일 발레 교류공연 2010 심현숙 발레단 제 13회 정기공연

3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발레단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심현숙이 이끄는 심현숙 발레단과 일본발레협회 규슈지부 지부장으로 있는 사이토 아키라가 단장으로 있는 일본 아사발레단의 교류무대.

■ 문 의 심현숙(753-5080, 017-857-5080)

CONCERT

재즈, 와인에 빠지다 15번째 이야기

3월 5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 관람료 R석 25,000원 · S석 15,000원

■ 문 의 (주)아이엠아이(623-0678)

Progran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2010 추억의 낭만콘서트-부산

3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7:30 KBS 부산홀

■ 관람료 VIP석 77,000원 · R석 66,000원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 문 의 스타라인(1644-7080)

15주년 기념 2010 컬투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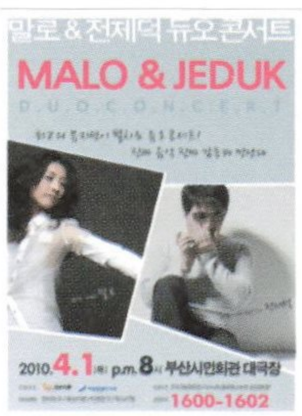
3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8:00
KBS부산홀

■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 문 의 KNN(1588-8477)

Korea Jazz Stars 전제덕 & 말로 듀오콘서트

4월 1일 목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대극장



세련된 재즈어법과 독창적 보컬로 한국적 재즈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는 재즈 디바 말로와 한뼘 하모니카로 세상을 놀라게 한 한국 최고의 재즈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의 듀오콘서트.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문 의 에스엠기획(1600-1602)

EVENT

부산시울림 제 92회 시낭송회

3월 3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고명자, 권정일, 박재도, 서경원, 심호섭, 안효희, 이은주, 이정모, 하정은
· 연주/엄남이(소프라노,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 사회/한창옥

■ 문 의 김예강(019-516-1867)

GALLEEY

노순택 사진전

1월 16일(토)-3월 28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지산동고분과 대가야' 사진전

1월 26일(화)-3월 21일(일) 복천박물관

■ 문 의 복천박물관(550-0311, 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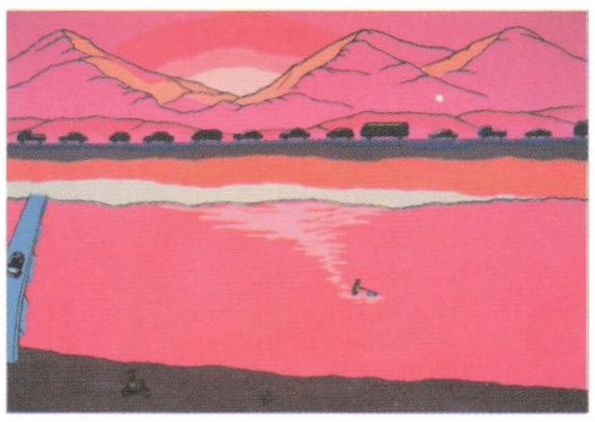
제 12회 이계안 도예초대전

2월 19일(금)-3월 20일(토) 갤러리 몽마르트르

■ 문 의 갤러리 몽마르트르(746-4202)

해나정 개인전 'GOING HOME'

3월 2일(화)-3월 26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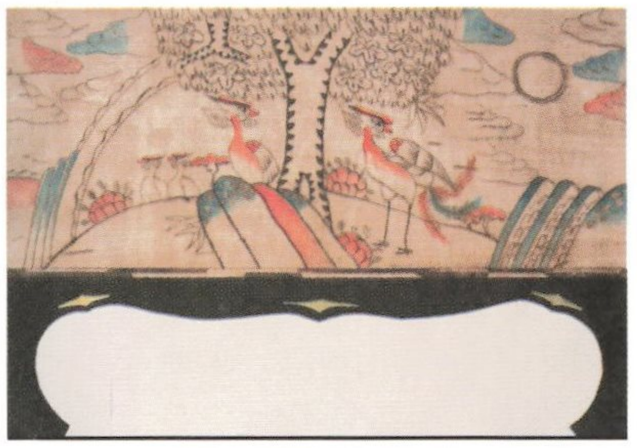
moving 展

3월 5일(금)-3월 11일(목) 롯데갤러리

■ 문 의 롯데갤러리(810-2328)

하이스트 컨트리 클럽 초청 봄맞이 판화 축제

3월 6일(토)-3월 31일(수) 갤러리예가



곽태임 作 '봉황장생도'

■ 문 의 갤러리예가(624-0933)

'2010 春-美' 展

3월 8일(월)-3월 14일(일) 타워갤러리

■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김동열 黑釉(天目) 찻사발展

3월 9일(화)-3월 14일(일) 영광도서갤러리

■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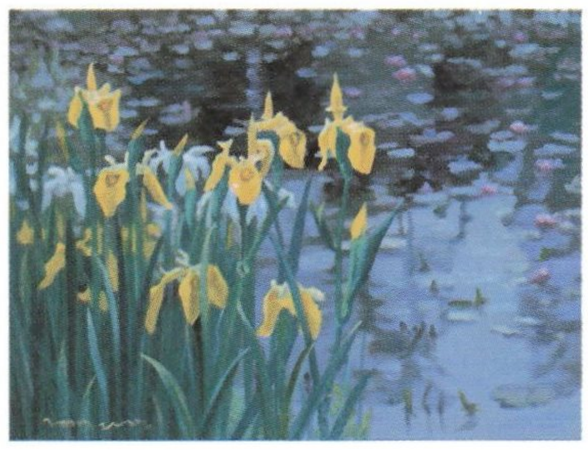
2010 Silver Story

3월 12일(금)-3월 18일(목) 롯데갤러리

■ 문 의 롯데갤러리(810-2328)

2010 꽃그림전 '축제'

3월 15(월)-3월 31일(수) 타워갤러리



김설화 作 '창포'

■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백혜주 개인전

3월 19일(금)-3월 25일(목) 롯데갤러리

■ 문 의 롯데갤러리(810-2328)

연극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 이윤택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해석은 어떠한 공연을 만들어낼지 무척이나 기대되었다. 무거운 이야기를 경쾌하고 박진감 넘치게 풀어낸 점이 새로운 느낌의 연출이었다. 게다가 중, 노년의 배우들의 연륜있는 연기가 빛이 났던 것 같다. 이번 공연은 기대이상이었고 부산에서 다시 한다면 한번 더 보고싶다.

–김현주(부산진구 부암1동)

연극 '맥베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드'와 한국 전통이 만났다. 그래서 친숙한 듯 하면서도 신선했다. 전통 수영야류 형식을 차용하였고, 맥베드의 독백도 마당극 배우들의 발성을 닮았다. 욕망에 사로잡혀서도 고뇌하고 망설이는 인물들, 틈틈이 전해지는 해학적인 무대까지도 충분히 인간적이다. –이미경(동래구 온천2동)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언제나 우리의 영웅으로 불리는 이순신. 알지 못했던 이순신의 다른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공연이었다. 그저 역사책속에서, 사극 드라마 속에서 보아왔던 근엄한 이순신만을 생각하던 나에게는 정말 재미있는 충격이었다. 임진왜란, 그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의 삶은 계속 이어져 간다. 모든 왜적들이 나쁜 사람이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생각지 못했던 일이지만, 있었을 법도 한 일 같았다. 우리의 영웅 이순신의 근엄함보다는 좀 더 우리 가까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다. 무대의 사용도 좋았고, 배우들의 실력 또한 좋았다. 특히 여배우의 노래 실력은 완전 짱! – 문아름(영도구 동삼3동)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6–세렝게티

두어번의 공연을 본 후 정말 매력적인 밴드라 직감하고 지난해 11월 서울 상경까지 감행하며 보러간 세렝게티. 그 공연을 부산에서 거기다 좋은 공연장 문화회관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다.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공연, 그루브한 멜로디. 멋진 목소리. 연주 실력까지… 흔히 연애 초에는 남과 여가 밀고당기기를 하듯한 입담에 그 분위기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실력있는 대한민국 인디밴드 공연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계속 만나고 싶다. – 정지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한시도 졸릴 틈이 없는 화려한 비보이들의 움직임과 대사는 한마디도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로 공연 한 시간반이 믿을 수 없이 빨리 흘러갔어요 !! 세계의 비보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엿한 극장에서 한 문화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흐뭇하고 뿌듯하네요 –하유진(부산진구 부전동)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후쿠오카 시민을 웃고 울린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필앙상블



동래초등학교 성악부와 함께 무대에 오른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필앙상블

지난 2월 10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 20회 아크로스 런치타임 콘서트에서 초청연주회를 가진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필앙상블이 후쿠오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부산시와 자매도시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후쿠오카시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한류의 열기를 북돋우기 위해 열린 이번 연주회는 클래식 음악은 물론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류 드라마음악을 레퍼토리로 선정, 후쿠오카 시민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이날 공연 실황은 라디오 방송으로 중계되어 현장에 참석한 관객 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못한 후쿠오카 시민들에게도 전해져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음악성을 알리기도 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레이디스필앙상블은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등 현지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3월 일정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이 2010년에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3월에는 3월 1일 3·1절 기념식을 시작으로 부산시청 로비 콘서트, 농심녹산공장, 북구문화빙상센터 등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 3월 공연 일정

3월 1일(월)	10:00	3·1절 기념식-시민회관, 용두산공원(출연/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3월 2일(화)	10:00	복지관 순회공연-학장종합사회복지관(출연/무용단)
3월 3일(수)	12:30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로비콘서트' -부산시청로비(출연/무용단)
3월 3일(수)	14:00	복지관 순회공연-전포종합사회복지관(출연/무용단)
3월 4일(목)	15:00	복지관 순회공연-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출연/무용단)
3월 10일(수)	12:30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로비콘서트' -부산시청로비(출연/교향악단)
3월 11일(목)	14:00	복지관 순회공연-동원종합사회복지관(출연/무용단)
3월19일(금)	15:00	근로자 위문공연-농심사상공장(출연/국악관현악단)
3월24일(수)	12:30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로비콘서트' -부산시청로비(출연/국악관현악단)
3월27일(토)	10:00	구포도서관 연주회(출연/교향악단)
3월29일(월)	08:30	에어부산 국제선취항 축하공연-김해공항 국제선(출연/교향악단)
3월30일(화)	19:30	북구문화빙상센터 연주회(출연/교향악단, 합창단)
3월31일(수)	14:30	근로자 위문공연-농심사상공장(출연/교향악단)

201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규단원 모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서는 부산 음악의 미래를 선도할 패기 있고 우수한 기량의 신규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분 및 전형내용

가. 모집부문 : 바이올린, 비올라,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타악기
나. 응시자격 : 부산 소재 중 · 고 ·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인제대 포함)
다. 응시곡목 : 자유곡 / 협주곡 및 소나타 빠른 한 악장(무반주)
지정곡(당일제시)

■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실기전형 : 2010. 3. 13(토) 14:00 교향악단 연습실
나. 면접전형 : 2010. 3. 18(목) 18:00 문화회관 회의실

■ 합격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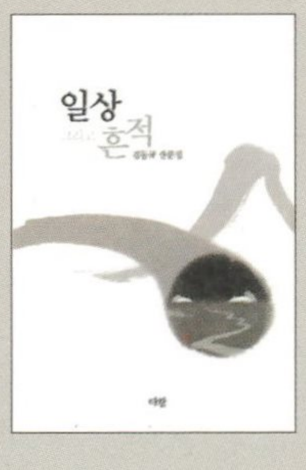
가. 실기전형 : 2010. 3. 16(화), 면접전형 : 2010. 3. 19(금)
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공고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3. 2(화) 09:00 ~ 2010. 3. 10(수) 18:00 까지
단,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3. 10(수)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재학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다. 접 수 처 : 부산시립교향악단 사무실

■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3)

부산국제연극제 김동규 집행위원장 산문집 '일상 그리고 흔적'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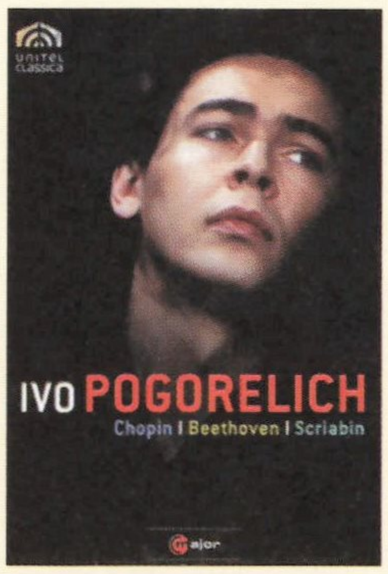
부산국제연극제 김동규 집행위원장이 두 번째 산문집 '일상 그리고 흔적'을 출간했다.

이번 산문집은 1997년 산문집 '미식가의 점심회상' 이후 10년 동안 해원 수필동인으로 발표해온 산문과 방송 칼럼 등을 엮어 낸 책이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연극영화학과를 창설하고 부산연극사를 집필하는 한편 부산바다축제, 부산시립극단을 창설하고 부산국제연극제를 성공으로 이끌기까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저자의 삶과 열정 넘치는 예술인생을 엿볼 수 있다.

NEW MUSIC

문희정. 지엠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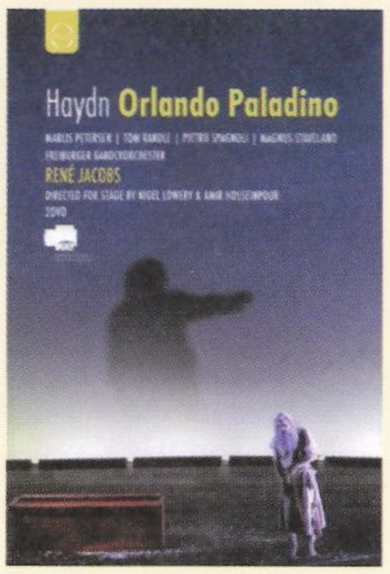


이보 포고렐리치(DVD)

쇼팽 피아노소나타 2번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27, 32번 /스크랴빈 에튀드 Op.8-2 등

▶ 이 시대의 가장 개성 넘치는 피아니스트를 영상으로 만나다

이보 포고렐리치는 1958년 유고연방의 수도였던 베오그라드에서 태어났다. 포고렐리치가 음악계의 이슈메이커로 부각되었던 것은 1980년 쇼팽 콩쿠르에서의 해프닝 때문이었다. 예선 3라운드에서 그가 탈락하자, 당시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었던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그에 반발하여 콩쿠르 심사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후 포고렐리치는 아르헤리치의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 정상급 피아니스트로 승승장구했던 반면, 당시 우승자였던 당타이손은 이후 음악계에서 그리 큰 반향을 일으키질 못했다. 지난 2005년의 내한공연에서 중후한 풍채의 민머리 중년남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국내 팬들에게 당혹감을 주기도 했지만, 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87년 8월 이탈리아의 빌라 콘타리니에서 촬영된 본 DVD에는 날카롭고도 댄디했던 과거 미청년 시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쇼팽의 피아노소나타 2번과 베토벤의 두 후기 소나타 27, 32번을 중심으로 이 개성 넘치는 피아니스트의 화려한 테크닉과 풍부한 표현력이 화면 가득히 펼쳐져나간다.



하이든 성기사 오를란도(DVD)

마를리스 페테르센(안젤리카)/ 톰 란들(오를란도)/ 피에트로 스파뇰리(로도몬테)/ 임선혜(유릴라)
알렉산드리나 페다찬스카(알치나)/ 르네 야콥스/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고 임선혜가 출연한 하이든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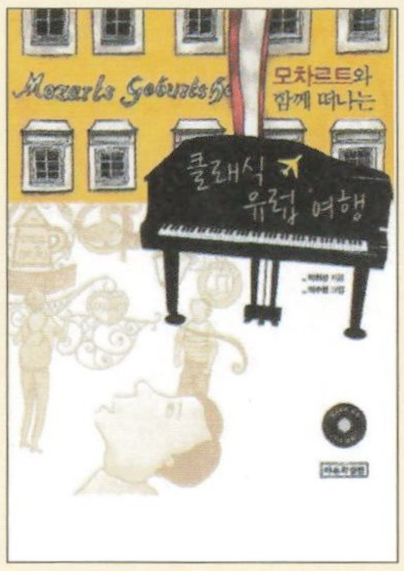
하이든의 서거 200주기였던 2009년 5월, 베를린 슈타츠오퍼에서 있었던 화제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DVD. 여러 모차르트의 걸작들을 통해 고전 오페라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각광받고 있는 당대연주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르네 야콥스가 지금껏 과소평가되고 있는 하이든의 오페라들도 모차르트의 작품들 못지않은 빼어난 매력을 머금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1782년 에스테르하지 궁전에서 초연되었던 3막 오페라 '성기사 오를란도'(Orlando Paladino)는 하이든이 남긴 14편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비발디, 스카를라티, 륄리, 헨델 등이 오페라를 남겼던 아리오스토의 유명한 서사시 '광포한 오를란도'(Orlando Furioso)에서 내용을 빌려왔다. 르네 야콥스의 총애를 받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소프라노 임선혜가 비중있는 배역인 유릴라로 상큼한 매력을 과시하며, 여주인공 안젤리카를 노래한 미모의 소프라노 마를리스 페테르센, 타이틀 롤의 미치광이 캐릭터를 열연한 톰 랜들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들이 연기와 노래 양쪽 모두에서 고른 활약을 보여준다. 작품의 코믹한 분위기를 잘 살려낸 니이젤 로우리의 연출도 맛깔스럽다.

-1782년 초연된 하이든의 오페라 '성기사 오를란도'는 루드비코 아리오스토의 유명한 서사시 '광포한 오를란도'(Orlando Furioso)의 내용을 바탕으로 눈치아노 포르타가 마련한 리브레토에 곡을 붙인 것이다. 성기사 오를란도는 이교도 공주인 안젤리카에 반하나, 안젤리카에게는 연인 메도로가 있다. 오를란도는 짝사랑에 미쳐 이성을 상실하고 이 두 커플을 스토킹하기 시작한다. 오를란도의 광적인 집착을 벗어나기 위한 안젤리카와 메도로의 우여곡절이 이어지며, 마침내 오를란도는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관련된 여러 커플들이 연결되면서 해피엔딩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 소프라노 임선혜는 1998년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뒤 독일 칼스루에 음대로 유학하였다. 고음악계의 거장 헤레베헤에에 발탁된 이후 유럽 음악계 일선에서 맹활약 중이다. 특히 르네 야콥스, 윌리엄 크리스티, 지기스발트 쿠이겐, 파비오 비온디와 같은 거장들과 꾸준히 작업하면서 이 분야 최고의 소프라노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NEW BOOK

글 **박현주.** 동보서적 〈웹진 책소식〉 편집장



모차르트와 함께 떠나는 클래식 유럽 여행

박휘성 지음, 박수현 그림
이론과실천 / 308P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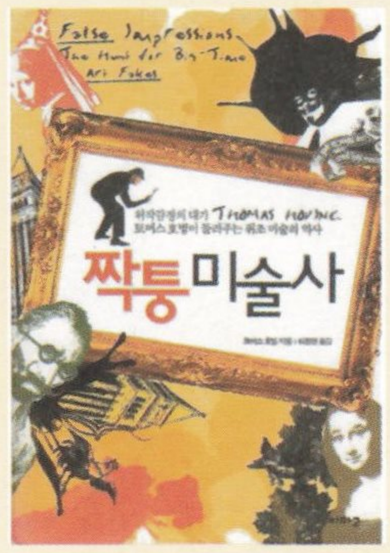
만약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보고 싶은가. 이 책은 열정의 천재음악가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보라고 유혹한다. 배경음악 제작, 3D 그래픽 업체를 운영하는 박휘성 씨가 글을 쓰고, 제 1회 CJ그림책축제(2008)에서 일러스트레이터 50인에 뽑혔던 박수현 씨가 그림을 그렸다. 모차르트는 유년기 내내 가족과 함께 빈, 뮌헨, 프랑크푸르트, 브뤼셀, 파리, 런던 등으로 연주여행을 다녔으며, 저자는 이 여정을 따라 모차르트의 생애와 음악세계를 추적한다. 모차르트가 살던 1756년 잘츠부르크로 여행을 떠나 모차르트의 여정을 따라 유럽 대륙을 다니는 가상 여행기 형식으로 역사적 사실에 소설적 허구를 섞어 재미를 더했다. 네 살 때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고 다섯 살에 첫 작품을 작곡한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유럽으로 연주여행을 다니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35세에 짧은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오페라, 미사곡, 실내악, 교향곡, 피아노 협주곡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600여곡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모차르트가 남긴 곡 가운데 특별히 선별한 곡들을 부록 CD에 담아 제공한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20년 그리고 100장의 음반

배철수 지음
510p / 23,000원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방송 20주년을 기념하여, 프로그램과 함께 장수해 온 DJ 배철수가 직접 100대 명 음반을 선정했다. 배철수 씨는 삶의 대부분을 음악과 함께하고 있다. 1978년, 그룹 '활주로' 멤버로 해변가요제에서 '세상모르고 살았노라'로 인기상을 받으며 데뷔했고, 같은 해 대학가요제에서 '탈춤'으로 은상을 받았다. 이듬해 '송골매'를 결성해 보컬과 드럼, 기타를 맡았는데 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빛나던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록 그룹의 일원으로 보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음악을 소개하는 일로 직업을 바꾸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음악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중이다. 3개월에 걸친 선정 작업을 통해 완성된 음반 목록에는 라디오 청취자들과 호흡해온 배철수의 20년 관록과 록 밴드 송골매의 리더로도 활약했던 그의 뮤지션적 시각이 어우러져 있다. 특정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록, 재즈, 헤비메탈, 포크, 힙합 등 팝의 모든 장르를 망라했다. 배철수 특유의 위트와 지성이 반짝이는 명쾌한 코멘트가 돋보인다. 대한민국에서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거치지 않고는 팝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반가워할 책.



짝퉁 미술사

코머스 호빙 지음, 이정연 옮김
이마고 / 733p / 28,000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5년간 일하면서 나는 모든 분야의 미술품 약 5000점을 검사해 보았다. 이중 무려 40%가 위조품이거나 너무나 '위선적으로' 복원된 작품, 혹은 다른 작품으로 오인되고 있어 위작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작품들이었다. 나는 그때 이후 지금까지 그 비율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관장을 지냈던 토머스 호빙의 말이다. 위작감정가로서도 명성이 높았던 그는 세계 미술시장과 유명 미술관에 위작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미술계에서 말하기 꺼려했던 미술품 위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이 책을 발표했다. 이 책은 미술품 위조를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은 위작감정가의 세계로 초대한다. 전반부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위작이 생산되고 유통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뛰어난 실력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인 뛰어난 위조꾼을 소개한다. 위작감정의 대가인 저자의 경험을 곁들여가며 미술계에 감춰지고 숨겨진 희대의 위작을 둘러싼 위조꾼과 위작감정가의 치열한 두뇌싸움과 진실게임을 펼쳐보이는 책이다.

아름다운 대나무숲에서 펼쳐진 2월 테마여행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을 하루 넘긴 2월 5일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있는 날. 봄기운을 시샘하듯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여행지로 향하는 버스 안은 테마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아올랐다.

2월 테마여행지는 아름다운 대나무숲으로 유명한 사천 비봉내마을과 천년고찰 다솔사.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주아, 박순자, 조은경 씨가 동행하면서 회원가족들을 더욱 설레게 했다.

두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소나무가 아름다운 절 '다솔사'. 일주문도 천왕문도 없는 다솔사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산문 역할을 한다. 다솔사를 처음 찾는 이들은 이 소나무 숲에서 절 이름을 떠올리지만 절 이름 '다솔(多率)'은 다솔사가 자리한 봉명산 산자락이 마치 많은 군사를 거느린 대장군처럼 보인다 해서 부쳐진 이름이다.

다솔사 입구에 자리한 바위 '어금혈' 앞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배시남 문화유산해설사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바위 '어금혈'에는 다솔사 주변에 묘를 쓰면 후대에 임금이 태어난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당시 임금이던 고종임금이 '임금의 명으로 산에 묘를 쓰는 것을 금한다'는 '어금혈봉표(御禁穴封表)'를 하사했다는 일화가 전해져온다.







108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다솔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대양루와 적멸보궁을 만날 수 있다. 원래 대웅전이었던 적멸보궁은 1978년 대웅전 아미여타래 탱화에서 진신사리 108과가 발견되면서 적멸보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적멸보궁 왼편에 자리한 요사채는 한때 다솔사에서 야학교사로 일했던 작가 김동리 선생이 소설 '등신불'을 쓴 곳으로도 유명하다.

다솔사 뒤편에 조성된 야생차밭과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해우소까지 꼼꼼히 돌아본 회원 가족들은 다음 일정지인 비봉내마을 대밭고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1965년부터 조성된 국내 최대의 대나무숲을 갖춘 비봉내마을 대밭고을은 1만여평 대나무숲에서 펼쳐지는 숲 산책과 대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가족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나무숲 해설사인 강춘성 씨의 안내로 대나무숲 산책에 나선 정기회원 가족들은 하늘마저 가려버린 빽빽한 대나무숲의 아름다움에 연신 탄성을 자아냈다.

맛있는 점심식사 후 그윽한 댓잎차 한 잔으로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던 정기회원 가족들은 대나무를 이용한 비누와 피리 만들기로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어른들이 대나무 죽초액으로 대나무 비누를 만들 동안 아이들은 대나무를 이용한 피리를 완성했다.

체험시간이 끝나고 이어서 정기회원 가족들이 기다리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미니콘서트가 펼쳐졌다. 정악인 '청성곡'에서부터 민속악인 아리랑 모음곡, 팝송, 가요 등 퓨전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사했던 단원들은 마지막 앵콜무대로 아이들의 대나무 피리와 어우러지는 합동무대를 선사해 정기회원 가족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2월 테마여행의 마지막 체험은 비토섬에서 굴구워먹기. '별주부전'의 전설이 서린 비토섬 갯벌에서 채취한 싱싱한 굴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 정기회원 가족들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즉석에서 구워낸 짭조롬한 굴로 출출해진 배를 채웠다.

돌아오는 길 광포만에 들려 철새탐조까지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어두워지는 사천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글, 사진/정복엽)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투어펀

2010년 4월에는 **청도**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3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3월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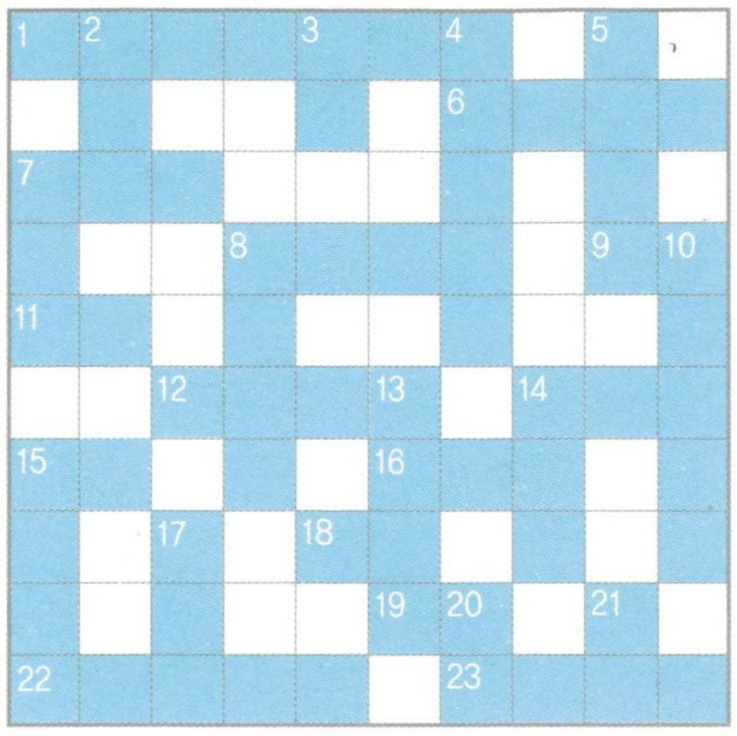
엽서당첨자

강상수(사상구 엄궁동)
김명지(해운대구 중1동)
김양근(영도구 남항동)
서영숙(남구 용호동)
이지영(사상구 학장동)
임서현(서구 아미2가)
조재은(연제구 연산9동)
최은미(부산진구 가야2동)
최정숙(서구 부민3가)
황진희(서구 동대신동)

신규가입자

고권진(강서구 신호동)
김정희(해운대구 중동)
김태숙(사상구 학장동)
명지행(남구 대연3동)
이경미(남구 대연1동)
이봉주(남구 대연3동)
이수형(해운대구 우동)
이순우(영도구 동삼3동)
이윤용(사하구 괴정2동)
이화영(연제구 연산9동)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1_3월 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6_조선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관의 치적과 비리를 탐문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서 개선하는 일을 맡아하던 임시 벼슬.

7_유대인 율법학자의 구전과 해설을 집대성한 책.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정신문화의 원천으로서 높이 평가된다.

8_오스트리아의 작곡가. 18세기 빈 고전주의 악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페라, 실내악, 교향곡, 피아노 협주곡 등 여러 양식에 걸쳐 방대한 작품을 남겨 음악의 천재로 불린다.

9_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이름으로, 어린 시절부터 활을 잘 쏘았다 하여 부쳐진 이름.

11_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출신 학교와 학점, 토익점수와 자격증 소지 여부, 그리고 해외연수나 인턴경험 유무 등을 종합해 부르는 신조어.

12_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영화의 중심지.

14_작가 이상(李箱)이 1934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연작시. 현실의 부조리, 모순, 혼란 등을 표현한 시로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15_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인, 독일 태생의 영국 작곡가. 바흐와 더불어 바로크음악의 대작곡가로서 '음악의 어머니'라 불린다.

16_콜롬비아의 수도. 1538년 에스파냐인 G.히메네스데 케사다에 의하여 세워진 이래 식민시대부터 남아메리카 문화활동의 중심지로 '남아메리카의 아테네'라고 불렀다.

18_몽골의 민속가옥. 중국어로는 파오[包]라고 하며 높이 1.2m의 원통형 벽과 둥근 지붕으로 되어 있다.

19_문학작품, 사진, 그림, 조각 등의 예술품을 창작하는 사람.

22_'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천일야화를 소재로, 사실적인 묘사수법으로 그려낸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곡. 최근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우승자 김연아의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곡으로 잘 알려져있다.

23_'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

세로열쇠

2_신라 헌강왕 때 '처용설화'에서 유래된 가면무로, 지난해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3_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미국의 흑인음악에 클래식, 행진곡 등의 요소가 섞여서 발달한 대중음악. 약동적이고 독특한 리듬 감각이 있으며, 즉흥적 연주를 중시한다.

4_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로 인류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5_육지의 왕자를 사랑한 ○○○○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안데르센의 동화.

7_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만물의 근원을 추구한 철학의 창시자로, 그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했다.

8_'신비로운 미소'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의 부인을 그린 초상화로 알려졌으나 최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_조선 전기의 화가 안견의 산수화로, 꿈속에서 여행한 복사꽃 마을을 비단에 채색하여 묘사한 작품이다.

13_체코의 작곡가. 자연스러운 음악 속에 체코 민족의 애환을 담은 독자적인 작풍(作風)을 이루었다. 대표작으로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오페라 '루살카' 등이 있다.

14_'당신' 또는 '댁'이라는 뜻을 지닌 이인칭 대명사의 일본어에서 유래한 말로, 일반적으로 한분야에 열중하는 마니아보다 더욱 심취하여 집착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15_영국 랭커스터 가문의 창시자인 ○○○○의 일대기를 그의 왕자인 핼과 희극적 인물 폴스타프를 중심에 등장시켜 전개한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으로, 3월 11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17_체코의 시인이자 소설가. 대표작으로 장편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느림' 등이 있다.

20_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

21_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한국 최초의 현대 장편소설.

지난 호 정답

신	데	렐	라	■	마	해	송	■	축
■	카	■	벨	기	에	■	■	오	구
노	르	마	■	■	스	톡	홀	름	■
■	트	■	오	■	트	■	인	■	■
■	■	와	이	브	로	■	원	주	율
분	재	■	디	■	■	악	■	■	리
노	■	■	푸	■	라	보	엠	■	시
의	■	톨	스	토	이	■	■	데	스
포	탬	킨	■	■	온	달	■	칼	■
도	■	■	바	이	킹	■	마	라	톤

퍼즐당첨자 명단

■ 조은극장

김영화(연제구 거제2동)
김윤택(사하구 장림2동)
이여진(남구 용호3동)
이진숙(사상구 학장동)
임강현(강서구 대저동)

■ 공간 소극장

김미정(남구 대연2동)
성영화(동구 수정2동)
우정렬(중구 보수동)
유세라(연제구 거제3동)
최남이(북구 용수로)

■ 나랏소

김나미(사상구 주례2동)
김영희(사상구 학장동)
심숙정(부산진구 범천동)
이귀숙(해운대구 좌4동)
조정희(남구 용당동)

■ 큰집

김성미(부산진구 연지동)
김승진(사상구 학장동)
김현양(동래구 안락1동)
박성미(중구 중앙동)
박현정(금정구 구서2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나랏소 한우
한우 숯불구이 금양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3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왕의 칼은 잠들지 않는다

부산시립극단 제37회 정기공연

Henry IV by William Shakespeare

헨리IV세

왕자와 폴스타프

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Henry IV** Part 1, Part 2 번역 | 이태주 연출 | 김광보

출연 | 이창직, 박찬영,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염지선, 유성주, 황창기, 이혁우, 장하근, 유재명, 문호진, 민상오, 주재언, 최하영, 신동훈, 이은주, 허철녕, 김상균, 이미정, 이남희 조아라, 라세흠, 김두리, 김주연, 김은옥 무대 | 오윤균 의상 | 조문수 조명 | 조안곤 음악 | 최정우 영상 | 김혜지 분장 | 이지원 사진 | 이도희 조연출 | 이재신 무대감독 | 장순지 기획 | 김향숙 홍보 | 김미화 일러스트 | 다홍디자인

2010.3.11 Thu -13 Sat 평일 19:30 토 1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시립극단

관람료 | 일반 20,000원 청소년 16,000원

공연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극단 607-3151 예매처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www.bsculture.busan.kr, BS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부산문화회관 22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시 5% 할인받자!!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대표전화 070-8270-420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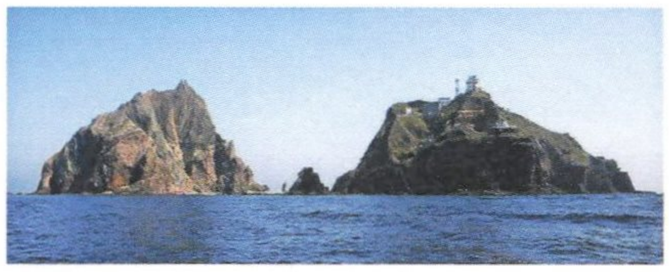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제주도의 봄

유채꽃 축제 미리보기



[대한항공]
초특가 제주여행 2일
AKPK55 16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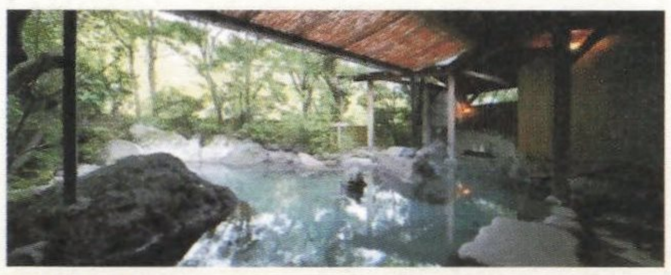
[셔틀포함]
울릉도/독도 2, 3일
AKFK00 235,000원~



[에어텔]
솔베이지펜션 2박+항공+렌트카
AKAK56 254,000원~

봄나들이 I

2010 일본의 하나미



[카멜리아]
북큐슈 온천+시내 4일
JKP566CRF 359,000원~



[코비]
하우스텐보스/유후인/벳부 3일
JKP556K00 439,000원~



[아시아나] 게이샤의 추억
오사카/교토/나라 3일
JOP70110Z6 649,000원~

봄나들이 II

중국의 3대 인기지역



[부산출발]
북경/만리장성/발마사지 4일
CNP751 239,000원~



[토요특가] 황포강 유람
상해/소주/항주 4일
CCP753KEH 279,000원~



취온천+전신마사지
황산/상해/항주 5일
CCP755MUT 399,000원~

휴양지 모음

아름다운 자연 휴양지



[관광형]
방콕/파타야 4일, 5일
AAP701 589,000원~



[직항]
캄보디아 앙코르왓 4일, 5일
AVP731 599,000원~



[하이하나 자체상품]
세부/마이크로텔+호핑포함 6일
별도문의 609,000원~

Hi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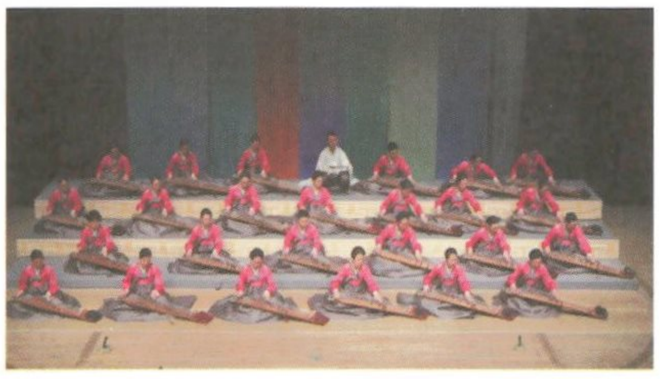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5%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박상헌 팀장 070-8270-4217 / 김수현 070-8270-4209

전국 대표전화
070-8270-4209
www.hihana.co.kr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3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가야금연주단 연주회



프로그램

25현 가야금 3중주곡바람의 향기(작곡/이준호)

아주 느리게, 바람이 춤추듯이, 마파람이 춤추다, 고요한 바람의 바다, 생동감 있게, 마파람의 향기까지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향신화(작곡/지원석)

현향신화는 가야금의 소리로 새로운 풍류소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작곡자가 남·북한의 가야금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데, 이 작품 역시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

가야금 선상의 아리아 여자의 눈물, 남몰래 흘리는 눈물, 축배의 노래(편곡/이수은 · 드럼/이상진 · 퍼크션/김민경)

유명한 오페라 곡을 25현가야금 선율로 재탄생하여 친숙하고 아름다운 곡을 선사한다.

영화속 아름다운 선율 'Exodus, A Love's Concerto, Moon River, La Bamba'(편곡/백규진)

영화 '접속'에 삽입되어 널리 알려진 '러브스 콘체르토',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주제곡 '문리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멕시칸 록의 영웅 리치 발렌스의 극적 일대기를 그린 영화의 주제곡 '라밤바'를 가야금으로 들려준다.

청산에 살으리라(편곡/황정원), **희망의 나라로, 부산찬가**(편곡/백규진)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을 희망이 피어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부산가야금연주단 창단을 기념해 위촉 편곡된 곡이다.(특별출연/테너 박훈)

· 해설/김남순(부산가야금 연주단 단장,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3월 13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프로그램

영가무도(춤/김동숙)

망자의 넋을 불러 깨끗이 씻어주어 부정을 가시고 원한을 풀어주어 극락으로 보내는 춤.

소고춤(춤/이현숙, 강미향, 황선희)

농악놀이 중 소고(법구) 가락만 발췌, 재구성하여 무대화한 작품으로 연주가락에 맞추어 소고를 들고 애절하게 한을 달래다가도 흥겹게 몰아내는 춤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무용.

명월연가(춤/이정식, 이정인)

찰나의 실수로 송도삼절 중의 하나인 명기 황진이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가슴 아파했던 벽계수 사이의 사랑을 담고 있는 작품.

무천의 춤(춤/김주령, 박창희, 김미란)

하늘에 풍년을 빌고 추수를 감사하며 부족 간의 친목을 꾀하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창작무용.

꽃타령(춤/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춤의 섬세함과 장단신명으로 악기와 춤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우아하고 화려한 춤사위.

동래학춤(춤/황대현)

학의 고고하고 우아하며 여유롭게 노니는 형상을 모방한 춤사위.

진도북춤(춤/권봉정, 오수연 · 악사/허태성, 류권홍, 김윤호, 최의옥)

화려한 북장단, 멋들어진 발놀림과 팔 사위는 풍물 춤과 같은 즉흥과 신명을 더해준다.

· 안무/홍기태(수석안무가) · 해설/이현숙

3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남산놀이마당 GOOD! 굿!! 사물놀이 이야기



프로그램

길놀이

마당을 정화시키고 불운한 액을 막는다.

비나리

경인년을 맞이하여 1년간 무탈, 무병, 재수, 소망을 기원한다.

삼도농악과 태평소 시나위

경기, 전라, 경상도 지역의 뛰어난 장단과 가락을 한데 모아 만든 사물놀이로 때론 느리고 때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가락의 참 멋을 느낄 수가 있다.

풍물판굿

풍물놀이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부분만을 집약하여 만든 판굿이다. 풍물의 백미라 하는 상모놀이, 부포놀이, 설장구놀이 또한 볼 수 있다.

· 출연/김호진, 임채련, 박정회, 이우창, 조대일, 방형웅, 한상훈 외 10명

· 연출/장재희 · 기획/류재철

• 관람료 : 선착순 무료 입장(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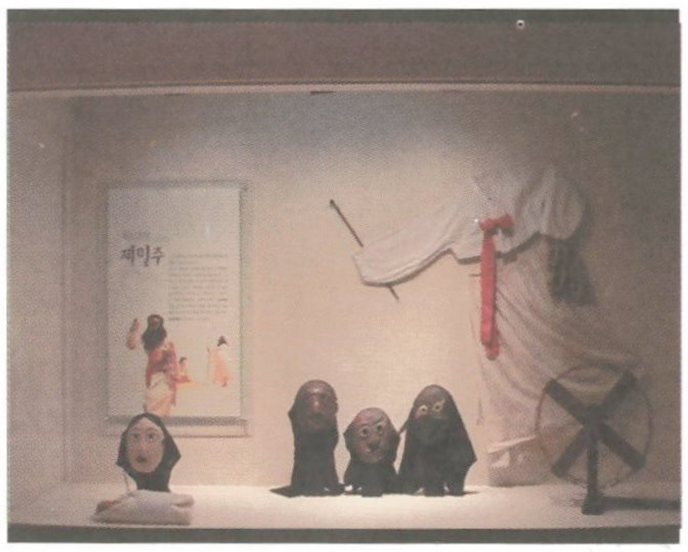


청도복숭아 시험장

▶ 4월 9일(금) 복사꽃 향기 가득한 청도 봄나들이

아름다운 복사꽃이 만개한 청도로 떠나는 봄나들이. 우리나라 유일의 복숭아 전문연구기관인 청도 복숭아 시험장을 시작으로 청도의 명물 감물염색체험, 조상들의 생활 철학이 담긴 고택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청도 도착, 복숭아시험장 방문
- ▷ 11:30 유호연지, 청담갤러리 전시관람
- ▷ 12:30 중식
- ▷ 13:30 감물염색체험
-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5:30 청도문화유적 답사–삼족대, 운강고택, 임당리고택 등
- ▷ 17:30 부산으로 출발



탈박물관

▶ 5월 14일 (금) 고성으로 떠나는 봄나들이–옥천사, 고성 탈박물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옥천사를 시작으로 민중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탈 박물관,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등 공룡 나라 고성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 떠나는 봄나들이.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옥천사 도착, 공룡발자국, 옥천사 불교문화 유적 답사
- ▷ 11:00 장산 숲, 허씨고가 답사
- ▷ 12:30 중식
- ▷ 13:30 탈박물관 관람, 탈 만들기 체험
- ▷ 15:30 고성 오광대보존회와 함께 하는 고성오광대 한마당
- ▷ 16: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제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BMIMF) 프린지 콘서트 연주자 및 연주단체 모집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2까지 부산 전 지역에서 펼쳐질 '제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BMIMF)'의 프린지 콘서트 연주자 및 연주단체를 모집합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축제의 장을 함께 열어갈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참가자격, 요건**

- 음악 전공자로 구성된 단체(개인도 가능). ■ 비전공자인 경우 - 연주회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단체.
- 부산지역의 연주단에게 우선권이 있음.(단, 연주단체의 활동지역이 경남일 경우 전체연주 중 20%이상 차지 할 수 없음)
- 신청 후 심의를 통과한 참가팀에 한해 참여가능.

◉ **접수기간** : 2010. 2. 10(수) ~ 2010. 3. 5(금) 17:00까지(결과는 3월 중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홈페이지 발표)
◉ **문 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임시사무국(070-7687-829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홈페이지(bmimf.co.kr)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라이어 2탄 '그후 20년' 20% 할인



2010. 3. 12(금)~3. 30(수)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3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10. 1. 1(금)~12. 31(금)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810-7000

JUMP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 · 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능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한식류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051-611-1960

예매 및 문의
051)804-2252

부산 비보이전용극장 THEATER
서면 구.은아극장

사랑한 비보이를 발레리나

20% 할인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화~금 20시/ 토 16,20시/ 일 및 공휴일 15,18시(월 휴관)
* 쿠폰제시 시 1인 4매까지 할인/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타 할인과 중복 불가능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2010년 4월 응모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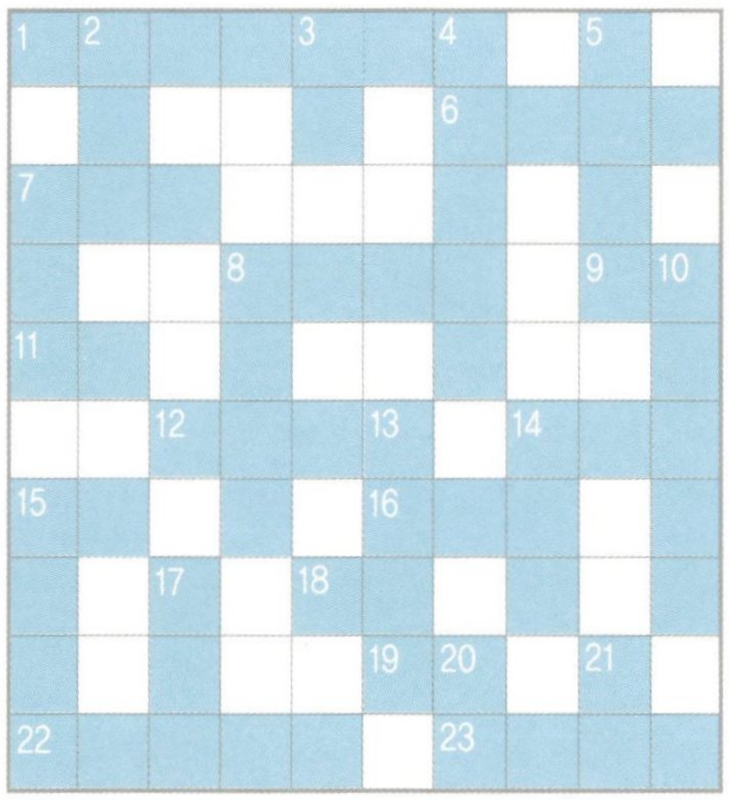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NO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YES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페르골레지 탄생 300주년 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29회 정기연주회

Stabat Mater

지휘 **전상철** (수석지휘자)
반주 **이영옥**
안무지도 **노금선**
합창지도 **김양자**

특별출연
소프라노 **조아라**
카운터 테너 **김종영**
금성중학교 오카리나합주단
(지도/지휘 김창학)

2010년 **3**월 **20**일(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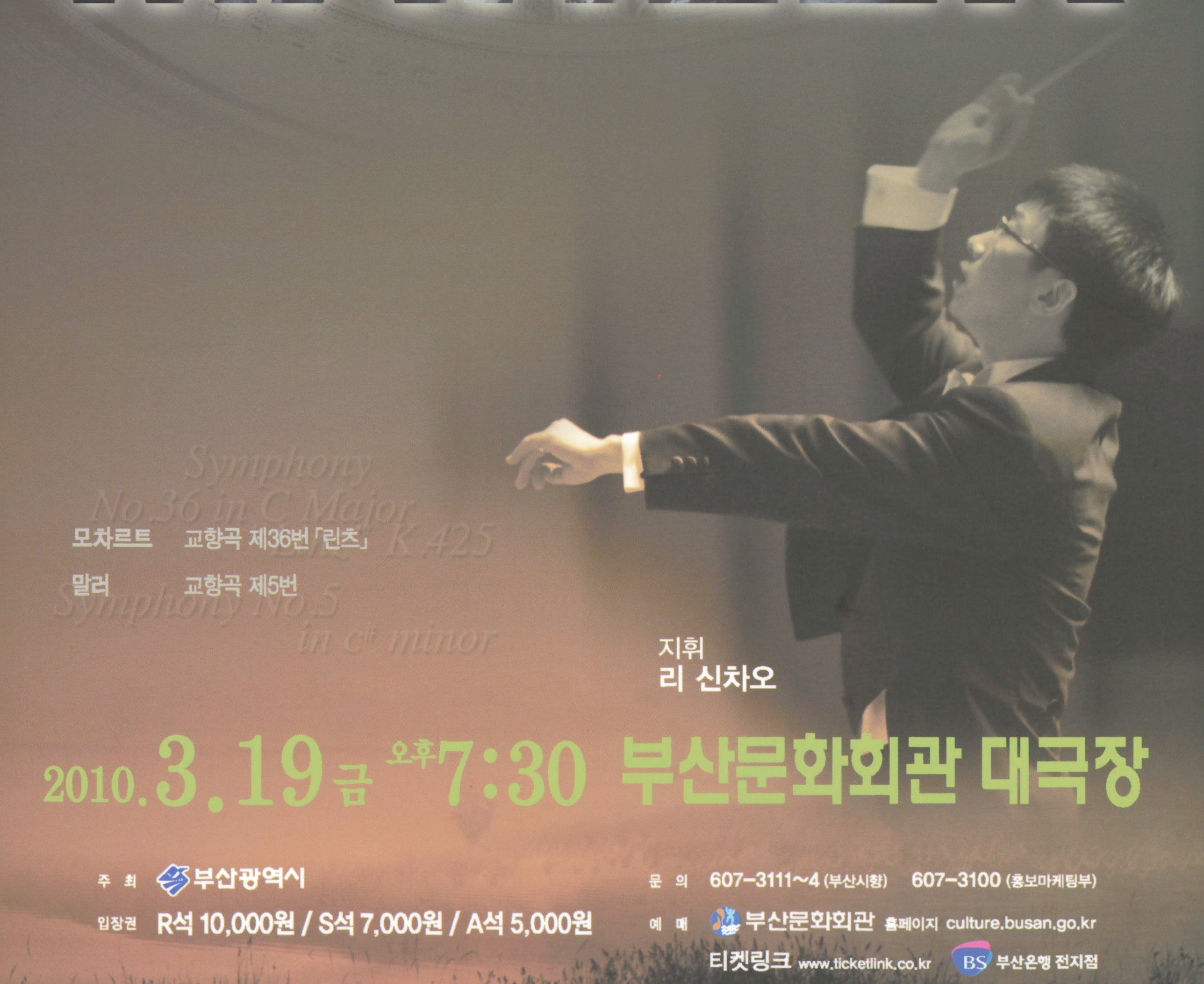
주최_ 부산광역시 주관_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장료_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문의_ (051)607-3161~2

제45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말러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I

MAHLER



모차르트 교향곡 제36번 「린츠」

말러 교향곡 제5번

지휘
리 신차오

2010. 3. 19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 의 607-3111~4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